國土硏 99-61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문화관광부문)

# 문화·관광국토의 구현

# The realization of the cultural-tourism nation

서 태 성

國土硏究院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문화 · 관광국토의 구현

# 序 文

국토계획이란,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미래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 번의 국토종합 10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국토계획을 통해 산업화의 공간적 기틀을 형성하였으며, 국토의 균형적이며 효율적인 개발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국토문제도 다방면에서 발생하였다. 환경오염, 지역간 불균형 심화, 기간시설의 부족, 삶의 질 문제 등등의 국토문제가 산적하여 왔으며,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새천년이 되는 21세기에는 산적한 국토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급변하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국토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대적인 조류와 국토여건이 결합되지 못하면 국토의 진보가 불가능하다. 바야흐로 국내외 여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세계는 지구촌으로 좁아지면서 국제적 교류는 나날이 넓고 깊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예견하고 있다.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융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국토발전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경제지리적 안목이 절실하다. 그런가 하면 정보의 세기가 진전되면서 정보·통신망이 교통망과 쌍벽을 이루는 국가기간체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지식은 힘이요 산업과 기술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의 입지공간은 국경없는 지구촌화되면서 동시에 지식과 두뇌입지가 중요 입지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환경과 문화는 21세기를 풍미할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화, 인간화, 문화적 특성화를 중요시하는 신인본주의가 국토발전의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21세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이 부와 자유 그리고 행복이다. 이와 가장 접근한 분야가 문화·관광부문이다. 소득의 향상과 자유시간의 증대 그리고 휴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미래상이 문화·관광부문에 투영되어 있다. 21세기에 닥칠 정보화와 세계화, 그리고 첨단의 교통수단은 국민과 세계인에게 상세한 지역 정보의 취득은 물론 물리적 이동을 간편하게 할 것이고, 소득과 자유시간의 증대는 우리에게 문화적 향수와 여행 그리고 각자의 성찰을 위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문화부문의 욕구와 발전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의 수요확대와 더불어 지역고유의 문화와 21세기적 문화가 동시에 추구되고 발전해 나아갈 전망이다. 따라서 문화부문은 고유의 영역을 뛰어넘어 연관산업분야와 관광분야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21세기는 세계가 문화의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우리국토도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본 연구는 국토의 21세기 문화·관광분야를 준비하는 연구이다. 20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국토계획에서 미래의 여행과 문화를 국토에 투영하는 일은 쉽지 않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약속하면서 연구진의 노력을 기대한다.

1999년 12월 31일

국 토 연 구 원
원 장 이 정 식

# 抄 錄

국토계획은 헌법 등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 국토 및 지역정책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계획으로서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의 국토비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시안에서는 국토환경의 적극적 보전을 중시하여 그 명칭을 과거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의 수립·집행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계획의 성격을 띠며, 2000년에서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토의 장기계획안을 담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향하는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이 기조는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을 포괄한 것이다. 기조에 따른 4대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 속의 녹색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역동적인 통일국토이다.

이들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7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②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③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④ 고속교통·정보통신망 구축, ⑤ 선진생활공간 확립, ⑥ 문화·관광국토 구현, ⑦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이다.

본 연구는 ⑥ 문화·관광 국토구현 부문의 연구이다. 문화·관광부문은 제1장이 문화·관광의 동향과 전망, 제2장은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우리 국토의 문화·관광부문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국민의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하여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문화·예술적 기반이 취약하며, 세계인에게 인지도가 낮고, 선진적 서비스 수준이 취약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둘째, 다양한 문화공간 및 관광자원 개발이 미흡하여 주요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관광·위락공간이 부족하며, 투자도 소극적임을 지적하였고 셋째,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미흡하여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넷째, 문화·관광 개발정책의 종합적 운영체계가 부족함을 제시하였다.

제2절의 여건변화 전망에서는 첫째, 관광산업이 세계 중심산업으로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관광산업을 전망하고, 세계관광량과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광 활동량을 전망한 후에 우리나라의 방한 외래객 및 국민의 해외여행객을 전망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방한외래객은 1,100만명, 국민의 해외여행은 1,300만명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는, 현재보다도 6.9시간이 많은 여가시간의 증대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여가패턴의 다양화를 전망하면서 휴가형태의 다양화와 개성적 활동이 증가되고 지금까지는 별로 알려지거나 이용되지 못하던 일부 희귀자원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향토문화·역사의 인식증대와 국제적 문화상품화의 전개에 따라 향토문화와 역사를 문화상품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의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넷째는, 문화·관광의 사회적·경제적 비중 증대를 전망하였다.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문화·관광기반의 확충"을 기조로 하여 "한국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문화·관광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 ② 전략적 문화·관광지역의 개발, ③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상품의 개발, ④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로서 첫째, 문

화 및 관광자원의 특색에 따라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하였는데, 한강유역권(국제도시, 전통문화와 관광), 강원권(남북교류와 4계절관광), 충청권(백제문화와 산악휴양), 호남권(테마형 전통문화와 해양관광), 영남북부권(전통문화와 섬유이벤트), 영남남부권(국제도시와 해양관광), 제주권(섬문화와 국제자유관광)이 그것이다. 특히 권역별로 다양한 특화주제를 부여하여 독특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대도시 지역에는 관광레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별도의 상세계획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도시의 문화·관광수요가 대량화하고 동시 다발하며, 계층화가 뚜렷하여 다양하고 많은 시설과 공간확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4장은 전략적 문화·관광지대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중원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기존의 문화권 정비사업 이외에도 안동유교문화권, 강화문화권, 지리산문화권, 다도해문화권 등 지역의 생활상이나 지형적 특수성 또는 역사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을 정비하고 신라문화촌, 백제촌 등 문화촌과 전통문화학습장을 조성하며,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협력과 동북아차원의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등 지역간에도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강화하고 지역간의 화합과 협력을 유도하였다.

제5장은 역사, 향토문화, 자연환경이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사와 전통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방안과 함께 컨벤션산업의 육성, 테마파크의 건설, 휴양실버타운의 개발, 크루즈상품의 개발 등 21세기형의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유치와 확대를 제시하였다. 한편 자연과 농산어촌의 생활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모색하여 모험관광, 생태관광, 체험관광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산촌휴양도시의 건설과 개발이익의 지역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문화·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강화 부문으로 먼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정책의 추진을 제시하고

공항, 항만 등 접근시설의 확충과 안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부문에서 예측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반시설의 공급 방안과 공공과 민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투자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자유로운 문화·관광활동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도시의 고도관리, 경관보전, 고건축물의 관리제도를 건의하고 고도시보전법(가칭) 등과 영국에서 시행중인 national trust제도의 도입을 건의하는 등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목 차

序 文 ..... 5
抄 錄 ..... 7

**제1장 문화·관광의 동향과 전망 ..... 17**
1. 현황과 문제점 ..... 17
1) 국민의 문화 및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 ..... 17
2) 다양한 문화공간 및 관광자원 개발 미흡 ..... 19
3)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미흡 ..... 27
4) 문화·관광공간개발정책의 종합적 운영체계 부족 ..... 29
2. 여건변화 전망 ..... 31
1) 관광산업이 세계 중심산업으로 성장 ..... 31
2) 여가시간의 증대와 관광패턴의 다양화 ..... 41
3) 향토문화·역사의 인식증대와 국제적 문화상품화 전개 ..... 47
4) 문화·관광의 사회적·경제적 비중 증대 ..... 50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 53**
1. 계획의 기조 ..... 53
2. 기본방향 ..... 54
1)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 ..... 54
2) 전략적 문화·관광지역의 개발 ..... 54
3)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상품의 개발 ..... 55
4)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56

**제3장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 .....57**
1. 문화 및 관광자원의 특성을 감안한 문화·관광권의 설정 .....57
2. 문화·관광권별 개발방향 .....58
1) 한강유역 문화·관광권 .....59
2) 강원 문화·관광권 .....60
3) 충청 문화·관광권 .....60
4) 호남 문화·관광권 .....61
5) 영남북부 문화·관광권 .....61
6) 영남남부 문화·관광권 .....62
7) 제주 문화·관광권 .....62
3. 대도시지역의 관광레저공간 확충 .....63

**제4장 전략적 문화·관광지대의 개발 .....65**
1. 지역문화와 자연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지역의 개발 .....65
1) 문화권의 정비·개발 .....65
2) 문화촌, 전통문화 학습장 조성 .....66
3)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국토환경의 제고 .....66
2. 남북협력 및 동북아 차원의 국제관광지역 개발 .....67
3. 지역간 공동개발사업의 추진 .....68
1)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등 해안벨트의 조성 .....68
2)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의 추진 .....69

**제5장 역사·향토문화·자연환경이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71**
1. 역사 및 전통문화공간의 확충과 상품화 .....71
2. 국제적 관광전문시설의 확충 .....72
1) 컨벤션산업의 진흥 .....72
2) 세계적 테마파크의 조성 .....74
3) 휴양실버타운의 개발 .....76
4) 크루즈상품의 개발 .....78

3. 자연과 농어촌 생활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 81
1) 모험관광 기반조성 ..... 81
2) 농어촌 관광상품화 ..... 81
3) 산림휴양도시의 조성 ..... 84
4) 개발이익의 현지화 ..... 85

**제6장 문화·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강화 .....87**
1.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정책의 추진 ..... 87
2.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공급 ..... 88
1) 접근시설의 확충 ..... 88
2) 안내 및 서비스 인프라 확충 ..... 89
3. 선진 문화·관광기반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90
1) 투자 및 집행주체간의 역할 정립 ..... 90
2) 자유로운 문화·관광을 위한 규제 완화 ..... 90
3) 문화·관광환경을 지원·관리할 제도의 제정 ..... 91

# 표 목 차

<표 1-1> 주요 문화시설현황(1997) ..... 19
<표 1-2> 국내관광 여행참가 현황 및 추세 ..... 20
<표 1-3> 숙박관광 및 당일관광 행태의 변화 추세 ..... 20
<표 1-4> 목적별 국민의 해외여행 실태 ..... 21
<표 1-5> 국민의 주요 해외여행 목적지 ..... 22
<표 1-6> 우리나라 관광·위락 공간현황 ..... 24
<표 1-7> 고급스포츠시설 이용객 추이 ..... 25
<표 1-8> 외래관광객 추이 ..... 25
<표 1-9> 동아시아지역내 국가별 관광투자 추이 ..... 26
<표 1-10> 영국의 관광매력(1995) ..... 28
<표 1-11> 관광과 예술분야가 서로에게 얻는 이익 ..... 29
<표 1-12> 문화·관광관련 기타 부처의 업무현황 ..... 30
<표 1-13> 세계 및 동북아 각국의 관광경제 전망 ..... 31
<표 1-14> 세계관광총량 전망(WTO) ..... 33
<표 1-15> 세계 관광환경 변화분석 ..... 34
<표 1-16> 2020년 세계 최대의 관광국 ..... 35
<표 1-17>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방문관광객 10위 국가 ..... 36
<표 1-18>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에 대한 영향 ..... 37
<표 1-19> 외래 방한객 추이 ..... 38
<표 1-20> 외래 방한객 전망 ..... 39
<표 1-21> 국민 해외여행 추이 ..... 40
<표 1-22> 국민해외관광객 전망 ..... 41
<표 1-23> 외래 및 국민해외 관광객 전망 ..... 41
<표 1-24> 각국의 근로시간 변화 ..... 42

<표 1-25> 선진국의 소득수준별 근로시간의 비교 ..... 43
<표 1-26> 주간생활시간 변화전망 ..... 43
<표 3-1> 7대 문화·관광권 및 특화주제 ..... 57
<표 5-1> 한국 컨벤션산업의 추진과제 ..... 73
<표 5-2> 세계의 테마파크 집객능력(1998) ..... 75
<표 5-3>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 76
<표 5-4> 일본 실버층의 방한여행 성향 ..... 77
<표 5-5> 세계 크루즈관광의 수요전망 ..... 79
<표 5-6> 생태관광의 유형별 개발방향 ..... 82
<표 5-7> 산림 휴양시설 조성 실적 및 계획 ..... 85
<표 6-1> 종래 개발방식과 지역중심 개발방식 비교 ..... 88

# 그림목차

<그림 1-1> 문화유산에 관한 참고자료 ..... 48
<그림 1-2> 문화관광정책의 변화전망 ..... 49
<그림 3-1> 7대 문화·관광권 ..... 58
<그림 5-1> 국제회의 산업의 효과 ..... 72
<그림 5-2> 한·중·일 관광객 교류 현황(1997) ..... 80

# 제1장
# 문화·관광의 동향과 전망

## 1. 현황과 문제점

### 1) 국민의 문화 및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

#### (1)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의 훼손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먹는 것, 자는 곳, 입는 것 등 의식주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국가기간시설의 확충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함께 국민의 생활과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잘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으나 문화부문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 환경을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벗어버림으로써 서구적 문화환경이 우리들 주변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종래 우리가 갖고 있던 초가집, 무명옷, 한옥, 세시풍습 등 우리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터부시되고 기피하는 현상이 사회저변에 여과없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토와 같이한 경관과 건축미 그리고 자연환경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세시풍습 등 전래되어온 각종 전통과 생활풍습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변모되었다. 결과적으로 서구화된 국토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외국인에게는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으며 서구화되어 정의되지 못한 어설픈 경관이나 문화만이 우리주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 (2) 문화예술적 기반 취약

일제치하와 6.25등으로 피폐한 국토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서 자연히 문화·예술분야는 국가적·국민적 관심사항에서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은 일부 예술인이나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은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배고픈 직업으로 인식됨으로써 국민속에 생활화, 대중화, 의식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이나 건축분야에서 서구의 유명도시처럼 우리만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조각작품, 잘 조화된 도시색채 등 수준높은 문화·예술적 경관과 환경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 (3)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지도 취약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에 비해서 개방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세계인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많지 못하였다. 때문에 아시아 극동지역문화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6.25전쟁과 민주화운동 등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운 사건이 외국인에게 장기간 전달됨으로서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지역으로 인식되는 등 잘못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국민의 선진적 서비스수준 취약

우리국민은 외국인에 비해 서비스에 익숙치 못하다. 우선 유교적 봉건

사회에서의 계급의식 즉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상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약하고 기피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하기도 쉽지 않아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도 한가지 요인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활동 전반에 걸쳐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도 불평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

### 2) 다양한 문화공간 및 관광자원 개발 미흡

#### (1) 주요 문화시설의 부족

우리나라의 문화시설은 그 절대량이 부족하다. 전국의 박물관은 215개소, 공연장은 327개소, 전시장은 841개소에 불과하다. 스페인의 경우 인구 150만명의 바르셀로나시에만도 박물관 40개소, 극장 및 공연장 154개소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시설의 부족은 비단 국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문화수준을 떨어뜨림으로서 외국인에게 대하여 한국의 문화적 기대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1> 주요 문화시설현황(1997)

단위 : 개,천인

| 구 분 | 박 물 관 | | 공 연 장 | | 전 시 장 | |
|---|---|---|---|---|---|---|
| | 개소 | 인구/개소 | 개소 | 인구/개소 | 개소 | 인구/개소 |
| 계 | 215 | 218.1 | 327 | 143.4 | 841 | 55.7 |
| 수도권 | 80 | 236.3 | 126 | 150.0 | 362 | 52.2 |
| 기타 시·도 | 135 | 207.3 | 201 | 139.1 | 479 | 58.4 |

주) 전시장: 미술관, 전시장, 화랑 / 공연장: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1) 한국관광공사, '9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화장실불결(21.1%), 상품강매(20.9%), 택시서비스(12.9%), 음식불결(7.1%) 등 외래객 불편사항의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부문에서 발생

### (2) 관광·위락공간의 부족

□ 관광수요의 증가

국민의 관광활동 참가수는 IMF의 영향으로 1996년 3,269만명에서 1997년 3,161만명으로 일시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간참여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량은 25,139만명에 이르고 있다. 즉 국민의 관광 여행 경험율은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으나 연간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2> 국내관광 여행참가 현황 및 추세

| 연도 | 참가자수(만명) | 경험율(%) | 인당 연간참여 횟수 | 총량(만명) |
|---|---|---|---|---|
| 1993 | 3,151 | 93.2 | 4.8 | 16,229 |
| 1994 | 3,060 | 90.5 | 5.3 | 17,817 |
| 1995 | 3,131 | 92.6 | 6.9 | 23,159 |
| 1996 | 3,269 | 90.9 | 6.6 | 23,772 |
| 1997 | 3,161 | 87.9 | 7.0 | 25,139 |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3~1997.

한국관광공사 시행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1980년대 이후

<표 1-3> 숙박관광 및 당일관광 행태의 변화 추세

| 구분 | 숙박관광 | | | | 당일 관광 | | | |
|---|---|---|---|---|---|---|---|---|
| 연도 | 참가자수 (만명) | 경험율 (%) | 인당연간 경험횟수 | 총량 | 참가자수 (만명) | 경험율 (%) | 인당연간 경험횟수 | 총량 |
| 1993 | 2,397 | 70.0 | 1.51 | 5,071 | 2,830 | 83.7 | 3.28 | 11,089 |
| 1994 | 2,326 | 68.8 | 1.48 | 5,004 | 2,701 | 79.9 | 3.78 | 12,780 |
| 1995 | 2,340 | 69.2 | 1.60 | 5,409 | 2,708 | 80.0 | 5.25 | 17,750 |
| 1996 | 2,323 | 64.6 | 1.28 | 4,603 | 2,917 | 81.1 | 5.34 | 19,205 |
| 1997 | 2,143 | 59.6 | 1.30 | 4,675 | 2,820 | 78.4 | 5.68 | 20,428 |

자료: 한국 관광 연구원,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93~97년도 각권

1998년까지의 관광행태변화를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으로 나누고 그것을 경험율로 본 결과 숙박관광여행이나 당일관광이 대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숙박관광 경험율이 정체상태에 있고 1인당 연간 참여횟수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관광에서는 경험율이 정체되어 있지만 1인당 연간 참여 횟수가 꾸준히 늘어 참가횟수 총량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1987년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국민의 해외여행 가운데 관광목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97년말부터 약화되고는 있으나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이 출국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표 1-4> 목적별 국민의 해외여행 실태

| 연도 | 계 | 관광 | 상용 | 방문시찰 | 공용 | 회의참가 | 기타 |
|---|---|---|---|---|---|---|---|
| 1985 | 484,155 | 1,745 (0.36) | 134,031 (28.0) | 45,939 | 5,349 | 11,472 | |
| 1986 | 454,974 | 3,101 (0.68) | 140,037 (31.0) | 44,842 | 5,360 | 9,921 | |
| 1987 | 510,538 | 12,871 (2.5) | 165,046 (32.0) | 46,282 | 6,257 | 10,531 | |
| 1988 | 725,176 | 133,851 (18.0) | 226,218 (31.0) | 62,588 | 8,235 | 13,615 | |
| 1989 | 1,213,112 | 448,727 (36.0) | 314,392 (26.0) | 123,714 | 11,626 | 14,070 | |
| 1990 | 1,560,923 | *793,899 (51.0) | 400,603 (26.0) | * | 12,372 | | |
| 1991 | 1,856,005 | *970,386 (52.0) | 488,296 (26.0) | * | 15,724 | | |
| 1992 | 2,043,299 | 724,145 (35.0) | 524,814 (26.0) | 373,282 | 17,212 | 24,236 | |
| 1993 | 2,419,930 | 846,813 (35.0) | 639,577 (26.0) | 388,101 | 17,183 | 24,223 | |
| 1994 | 3,154,326 | 1,290,123 (41.0) | 784,465 (25.0) | 428,201 | 24,320 | 28,447 | 598,770 |
| 1995 | 3,818,740 | 1,770,770 (46.0) | 900,069 (23.0) | 435,579 | 22,035 | 41,083 | 671,258 |
| 1996 | 4,649,251 | 2,347,166 (50.0) | 1,002,448 (22.0) | 515,444 | 20,568 | 49,300 | 714,325 |
| 1997 | 4,542,159 | 2,032,537 (45.0)) | 1,087,044 (24.0) | 606,149 | 18,090 | 61,744 | 736,595 |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1997
* 방문 시찰이 포함된 수치임
* 교포를 제외한 숫자임
( )는 구성비(%)

<표 1-5> 국민의 주요 해외여행 목적지

| 연도 | 총량 | 일본 | 아시아 | 미국 |
|---|---|---|---|---|
| 1981 | 436,025 | 110,455 (25.0) | 303,685 (70.0) | 83,021 (19.0) |
| 1982 | 499,707 | 144,424 (29.0) | 364,806 (73.0) | 88,461 (18.0) |
| 1983 | 439,461 | 155,727 (35.0) | 366,236 (83.0) | 84,208 (19.0) |
| 1984 | 493,108 | 156,827 (32.0) | 322,052 (65.0) | 97,906 (20.0) |
| 1985 | 484,155 | 169,823 (35.0) | 312,599 (64.0) | 105,617 (22.0) |
| 1986 | 454,974 | 158,880 (34.0) | 274,586 (60.0) | 110,669 (24.0) |
| 1987 | 510,538 | 195,918 (38.0) | 311,800 (61.0) | 117,300 (23.0) |
| 1988 | 725,176 | 321,526 (44.0) | 494,363 (68.0) | 133,869 (18.0) |
| 1989 | 1,213,112 | 605,673 (50.0) | 907,906 (75.0) | 183,742 (15.0) |
| 1990 | 1,560,923 | 782,782 (50.0) | 1,177,089 (75.0) | 259,853 (17.0) |
| 1991 | 1,856,018 | 914,155 (50.0) | 1,389,200 (75.0) | 295,642 (16.0) |
| 1992 | 2,043,299 | 901,648 (44.0) | 1,487,532 (73.0) | 349,935 (17.0) |
| 1993 | 2,419,930 | 956,407 (40.0) | 1,711,604 (71.0) | 420,177 (17.0) |
| 1994 | 3,154,326 | 1,051,865 (33.0) | 2,138,076 (68.0) | 576,741 (18.0) |
| 1995 | 3,818,740 | 1,000,190 (26.0) | 2,448,868 (64.0) | 657,804 (17.0) |
| 1996 | 4,649,251 | 1,111,316 (24.0) | 2,880,821 (62.0) | 839,573 (18.0) |
| 1997 | 4,542,159 | 1,126,573 (25.0) | 2,854,137 (63.0) | 806,264 (18.0) |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1997
* 아시아 방문객수에는 일본이 포함된 인원수임
( )는 구성비(%)

지역별 출국동향을 보면 가장 많이 찾은 여행목적지는 97년 일본으로 112만명에 달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아 지역으로 285만명이 출국하여 전체의 62.8%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미주지역은 93만명, 구주지역은 37만명 대양주는 37만명을 기록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일본과 미국으로의 여행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의 출국은 59만명으로 96년 대비 9.8% 성장하여 제3위를 차지하였다.[2)]

2) 한국관광연구원,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p.24

□ 관광자원 및 시설의 부족

현행법을 토대로 하여 볼 때 관광위락활동을 담고 있는 공간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 관광(단)지, 청소년 수련지구, 유원지, 도시공원(어린이, 근린, 자연, 묘지), 자연휴양림, 온천지구, 농어촌 휴양지, 체육시설, 문화재보호구역, 수렵장, 관광휴양지역으로 7개 부처, 12개 관련법, 18개 공간유형이 있다.[3)]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지 또는 시설은 지정만 되어있을 뿐 개발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개발된 일부자원에 대해서만 관광객이 집중하여 혼잡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환경훼손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자연자원을 개발하면서 자원별로 차별화된 개발이 되지 못하여 이용객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내에서의 차별화도 부족하고 이들과 새로이 공급되고 있는 자연휴양림간의 차별화도 부족하다.[4)]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보에 치중한 지방 정부간의 과열된 관광개발 사업은 과잉 공급과 모방의 연속이다. 또 문화·관광공간의 배치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관광활동 수요의 대부분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주변은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원거리의 자원입지지역은 개발이 부진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주말이나 연휴에는 도시로부터 지방의 관광휴양공간을 찾아 떠나는 인파와 자동차 행렬로 국가의 기간교통망이 체증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투자는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많았지만 민간에 의해 영리를 추구하는 고급스포츠 시설은 크게 증가하였다. 골프장의 경우 1990년 55개소 였으나 1998년에는 145개소로 크게 늘어났으며, 스키

3) 문화체육부, 관광진흥을 위한 10개년계획 세부추진계획 검토보고서, 1997, pp.28-32; 국토개발연구원, 국민 여가지대 조성을 위한 연구(1), 1992
4) 산림청, 자연휴양림 1988~1997 정책평가와 미래방향 재조명, 1998

<표 1-6> 우리나라 관광·위락 공간현황

| 구분 | | | 개소 | 면적 | 비고 |
|---|---|---|---|---|---|
| 자연공원 | 국립공원 | | 20 | 6,473.113 | |
| | 도립공원 | | 20 | 730.384 | |
| | 군립공원 | | 29 | 307.862 | |
| 관광관련시설 | 관광지 | | 168 | 176.898 | '97.12.31 현재 |
| | 관광단지 | | 8 | 40.72 | |
| | 휴양업(종합/전문) | | 29 | | 인터넷자료방 |
| | 시범야영장 | | 12 | | |
| 체육시설(스키장, 요트장, 승마장 등) | | | | | 97.6.1 현재 현황 별도 표 2에 기재 |
| 청소년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9 | 76,548 | ㎡ |
| | | 청소년수련관 | 32 | 208,919 | |
| | | 청소년수련실 | 131 | 245,668 | |
| | 자연권 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마을 | 31 | 19,821,509 | |
| | | 청소년 수련의 집 | 90 | 2,066,235 | |
| | | 청소년 야영장 | 114 | 4,541,588 | |
| | 유스호스텔 | | 36 | 290,971 | |
| 유원지 | | | 164 | 125 | |
| 자연휴양림 | 국유림 | | 77 | 153,014 | ha |
| | 공유림 | | 42 | 13,027 | |
| | 사유림 | | 47 | 6,950 | |
| | 소 계 | | 277 | 444,110 | |
| 관광농원 | | | 382 | | |
| 휴양단지 | | | 10 | | |
| 민박마을 | | | 209 | | |
| 온천지구 | | | 108 | 46,972.7 | 천평 |
| 도시공원 | 어린이 공원 | | 4,211 | 9,246.7 | 1,000㎡ |
| | 근린공원 | | 931 | 104,773.6 | |
| | 자연공원 | | 98 | 184,677.4 | |
| | 묘지공원 | | 36 | 19,031.8 | |
| | 체육공원 | | 20 | 3.338.9 | |
| 문화공간 | 공연시설 | | 235 | | |
| | 전시시설 | | 358 | | |
| | 지역문화복지시설 | | 116 | | |
| | 문화보급전수시설 | | 266 | | |
| | 도서관 | | 10,244 | | |

자료: 건설교통부, 국토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 1998;
문화관광부, 청소년 수련시설편람, 1998;
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1998;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한국 관광연감, 1997;
행정자치부, 한국도시 연감, 1998

장 역시 1990년 4개소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12개소로 3배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년간 이용객도 크게 증가하여 스키장은 1990년 56만명 수준에서 1997년 38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1998년 IMF의 영향으로 200만명 수준으로 감소) 골프장은 1990년 350만명 수준에서 1998년 1,100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7> 고급스포츠시설 이용객 추이

(천명, %)

| 구분 | 1990 | 1995 | 1998 | 년평균증가율 |
|---|---|---|---|---|
| 스키장 | 568 | 2,726 | 2,049(3,809) | 17.4 |
| 골프장 | 3,549 | 8,243 | 11,450 | 15.8 |

주: ( )는 1997년 이용객임

□ 관광부문 투자 인색

국민의 문화·관광 수요증대와 함께 외래 관광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래관광객은 1990년 약 300만명 수준에서 1997년 약 390만명으로 년평균 4.0%씩의 성장을 나타냈다.

<표 1-8> 외래관광객 추이

(단위 : 천명, 백만불)

| 구분 | 외국인 입국자수 | 관광수입 | 관광수지 |
|---|---|---|---|
| 1990 | 2,959 | 3,559 | 393 |
| 1995 | 3,753 | 5,587 | -316 |
| 1997 | 3,908 | 5,116 | -1,146 |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래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해 경제적 효과를 다양하게 얻으려면 공항이나 항구, 도로 등 SOC시설과 관광호텔 등의 숙박시설 그리고 운동위락시설, 테마파크, 컨벤션시설, 쇼핑시설 등을 잘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시설들이 미비하다면 보다 즐겁고 편안한 목적지를 선택하려는 관광객에게 외면당하게 되고, 치열한 국제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성장일로에 있는 관광산업을 국가발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외화수입의 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 각종 기회요인을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물류서비스 경쟁력의 제고와 관광객 수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해 공항이나 항구,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관광호텔, 리조트, 테마파크와 같은 관광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표 1-9> 동아시아지역내 국가별 관광투자 추이

단위 : 억US$

| 구분 | 1993 | 1995 | 1997 | 1998 |
|---|---|---|---|---|
| 일본 | 1,149.0 | 1,362.7 | 1,122.9 | 1,072.9 |
| 중국 | 166.5 | 209.7 | 256.2 | 288.1 |
| 한국 | 51.9 | 51.8 | 61.3 | 33.7 |
| 인도네시아 | 43.0 | 66.1 | 78.4 | 28.7 |
| 홍콩 | 42.4 | 54.5 | 71.9 | 84.0 |
| 대만 | 35.9 | 27.9 | 36.2 | 34.0 |
| 싱가폴 | 21.6 | 30.0 | 37.5 | 33.4 |
| 태국 | 14.3 | 23.1 | 24.7 | 15.3 |
| 필리핀 | 9.7 | 16.3 | 21.3 | 17.7 |
| 말레이시아 | 7.1 | 11.6 | 12.9 | 9.8 |
| 부르나이 | 0.3 | 0.3 | 0.4 | 0.5 |
| 계 | 1,541.7 | 1,854.0 | 1,723.7 | 1,618.1 |

자료 : World Tourism Council and APEC Tourism Working Group
The Economic Impact of Travel and Tourism Development in the APEC Region, 1998

그러나 WTTC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 관광부문에 투자가 주변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변국가 중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일본으로서 우리나라의 약 30배가 넘는 1,072억 달러 이상을 '98년에 투자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28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홍콩과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투자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약 34억불 정도가 관련 SOC시설과 관광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로는 IMF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앞으로도 중국이나 일본, 홍콩 등에 비해 투자가 계속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광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현재 약 4.5% 점유)을 단 1%라도 늘려가면서 21세기 초반에 관광거점국으로 발전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 3)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미흡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 및 재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특성 있는 관광·위락 공간 개발이 미흡하다. 또한 외래객이 즐겨 찾는 시설과 공간간의 이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미흡하다. 특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세계적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제 관광이 관광산업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공간 위상을 세계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 방한한 외래객이 추억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관광자원을 구체적으로 발굴하지 못해서 '우리중심'의 관광공간이 공급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관광시장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관광개발전략이 취약하다.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앞으로 제기될 문화관광, 생태관광, 컨벤션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의 전환태세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제경쟁력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관광산업의 지식기반산업화하기 위한 문화예술분야 및 각종 소프트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나 이 분야의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 셱스피어 고향에는 년 7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세계적 관광국가인 스페인에는 피카소와 미로 그리고 가우디 등 예술가들의 활동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현

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관광과 예술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광이 예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면 예술도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 극장에서의 공연예술은 영국의 외래관광객 유입에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관광공사와 잉글랜드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관광매력과 동기에 대해 극장의 공연이 5위에 37%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이다.[5]

<표 1-10> 영국의 관광매력(1995)

| 관광매력 유형 |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 |
|---|---|
| 역사성 있는 건물, 성 | 70 |
| 박물관 | 59 |
| 교회, 성당 | 58 |
| 대중에 공개된 공원 | 49 |
| 극장 | 37 |
| 화랑 | 37 |
| 골동품, 골동품전시회 | 23 |
| 콘서트 | 21 |
| 술축제 | 21 |
| 발레/오페라 | 12 |
| 스포츠관람 | 10 |
| 스포츠참가 | 51 |

자료: 영국관광공사/잉글랜드관광공사, 외래관광객조사 1995
문화정책개발연구원 homepage, 관광과 공연예술, 재인용

또한 관광객을 꾸준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벤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여야 한다. 이벤트 사업은 여러 관광상품 가운데 가장 비용효과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독일 뮌헨시의 맥주축제에는 매년 6백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데 '93년 수입은 1백억

5) 문화정책개발연구원 homepage, 관광과 공연예술
공연예술은 런던의 가장 큰 상품으로서 런던극장협회 소속 극장들의 유형별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현대뮤지컬 49%, 전통극 12%, 전통뮤지컬 11%, 현대드라마 8%, 시사풍자 6%, 오페라/오페레타 6%, 발레/무용 4%, 공포물/기타 2%, 아동극/무언극 1%, 시사풍자극 1%

마르크(5조원)로서 우리나라 전체 외국 관광객 지출의 2배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이벤트관광은 비수기 전략으로서 상당히 효과적이므로 4계절 관광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개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와 이벤트 등 소프트 분야를 산업으로 인식치 못하고 투자에 소홀함으로써 많은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표 1-11> 관광과 예술분야가 서로에게 얻는 이익

| 관광이 예술분야에서 얻는 이익 | 예술이 관광분야에서 얻는 이익 |
|---|---|
| · 관광객수와 수입증대에 촉매역할<br>· 고객의 만족과 재방문기회 증진<br>· 관광목적지의 이미지 제고<br>· 숙박, 관광자원 및 교통의 최적화 (비수기 해결)<br>· 관광PR에 긍정적 요소 | · 수입 창출<br>· 예술가에게 풍부한 경험과 모험의식 부여<br>· 다양한 활동기회 확대<br>· 보다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인한 후원기회 확대<br>· 폭넓은 관객확보로 실험적 공연기회 증가 |

### 4) 문화·관광공간개발정책의 종합적 운영체계 부족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문화·관광분야는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가려져서 발전에 지장을 받아왔다. 사치성 향락산업으로도 인식되었으며, 한때는 부동산 투기사업으로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일부활동에는 아직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시설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타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요율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공간 및 시설에 대한 투자나 관리주체가 복잡하고 역할분담이 모호하는 등 추진관행이 정비돼 있지 못하다. 즉 중앙정부 내부적으로는 문화·관광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및 각종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을 근거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막상 문화·관광자원의 지정과 개발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건교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는 분야가 많아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표 1-12> 문화·관광관련 기타 부처의 업무현황

| 관련부처 | 주 요 업 무 |
|---|---|
| 건교부 | 광역권개발계획제도, 개발촉진지구제도, 특정지역개발제도 등 지역개발사업 |
| 환경부 | 국·도립,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관리 |
| 농림부 | 관광농원, 관광어촌, 자연휴양림 등 농어촌 소득원 사업 |
| 해양수산부 | 해양관련 관광개발계획 |
| 행정자치부 | 온천, 각종 연수시설, 야영장, 청소년 수련장 등 |

또한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선별하여 특색있는 문화·관광환경 정비에 주력하기 보다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예산 확보 경쟁에만 급급하여 각 지자체간의 문화·관광적 특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역시 이를 조정하거나 사전에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여 국토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인정하고 활용하기보다는 공공은 공익성을 크게 주장하고 민간은 지나친 이익추구를 지향함으로써 다양한 자원과 시설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배치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주체간에 체계적 협력 구조가 미흡함에 따라서 지역간, 국제간의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 역시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관광자원의 공동·연계개발은 자원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테마화하고 package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임에도 개발주체간에 효율적 체계가 미흡하여 실현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지 못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외로 유출되는 등 민간의 지나친 영리추구로 당초의 개발목적이 희석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 2. 여건변화 전망

### 1) 관광산업이 세계 중심산업으로 성장

#### (1) 관광산업 전망

세계관광기구(WTO)[6]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의 관광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경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9년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11.7%(3조 5천억 달러), 무역거래량의 8%이상, 서비스수출의 35%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3대 산업(석유산업, 자동차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표 1-13> 세계 및 동북아 각국의 관광경제 전망

| 1999 추정치 | GDP | | | 고용 | | | 자본투자 | | |
|---|---|---|---|---|---|---|---|---|---|
| | US$ Mil. | 총계 의% | '99-2010 | 일자리 (천개) | 총계 의% | '99-2010 | US$ Mil. | 총계 의% | '99-2010 |
| 세계 | 3,549,900 | 11.7 | 4.3 | 192,300 | 8.2 | 1.0 | 733,200 | 11.3 | 3.9 |
| 동북아시아 | 536,860 | 10.0 | 2.8 | 57,210 | 7.1 | 3.0 | 133,970 | 9.0 | 4.2 |
| 중국 | 86,740 | 8.7 | 7.9 | 48,810 | 6.9 | 3.3 | 33,540 | 8.5 | 9.8 |
| 홍콩 | 18,130 | 11.2 | 1.7 | 220 | 10.0 | 2.7 | 7,690 | 12.9 | 6.3 |
| 일본 | 388,780 | 10.9 | 2.4 | 6,430 | 9.9 | 0.2 | 78,900 | 9.1 | 2.3 |
| 한국 | 25,780 | 6.5 | 4.4 | 1,150 | 5.7 | 3.1 | 8,120 | 8.0 | 7.5 |
| 마카오 | 6,520 | 54.2 | 3.0 | 150 | 43.0 | -0.2 | 1,230 | 30.7 | 6.1 |
| 대만 | 12,700 | 5.0 | 5.9 | 450 | 4.8 | 1.5 | 4,500 | 8.7 | 6.7 |

주: '99-2010 Annualized Real Growth Adjusted for Inflation(%)
자료: WTTC, Travel & Tourism's Economic Impact, March 1999.

아시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여가관광은 4.7%, 비즈니스 관광은 4.4%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해외여행객의 지출은 세계 수출의 8%를 차

6)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지하고 세계 일자리의 8%이상, 세계 자본투자의 11%이상이 관광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1999년 3천 888억 달러의 관광경제 GDP로 동북아지역의 관광리더자리를 굳힐 것이며, 중국의 인구와 전체고용수치가 동북아 지역관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문화·관광부문 4천 880만 일자리는 동북아 지역 일자리의 85%를 차지한다. 1999년 한국의 관광 GDP는 총 GDP의 6.5%, 관광일자리는 총고용의 5.7%, 관광투자는 총자본투자의 8.0%를 차지하며 GDP, 일자리, 투자 모두 세계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관광산업은 여행자를 위한 교통, 숙박, 음식, 레크레이션 그리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중의 하나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자이자, 경제에 높은 비중으로 외화를 넣어주는 주요한 수출산업임과 동시에 건축과 제조업에 대한 촉매자로 전 세계 총투자의 11.3%를 담당하고 있다.[7]

이렇듯 관광산업은 이미 세계적 중심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에는 더욱 발전하여, 세계관광 수입면에서 1999년 4,480억 달러에서 약 2조 달러가 되어 년평균 6.7% 눈부신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 (2) 세계관광량 전망

1997년도 국제관광시장은 아시아지역의 경제위기에 따라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광객수 6.13억명을 기록하여 2.9%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은 4,480억불로 전년대비 2.7% 성장하였다. 지역별로는 아·태지역이 9천만 명으로 전년대비 11.4%, 미주지역 1억1천만 명으로 전년대비 2.0%, 구주지역 3억 6천만 명으로 전년대비 3.2% 성장하였다.

WTO는 국제관광객수가 연평균 4%이상 성장하여 2000년에는 7억명,

---

7) WTTC, Travel & Tourism's Economic Impact, March 1999.
국토연구원, 한국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식산업화 방안, 1999. 9, 재인용

2010년에는 10억 5천만명, 2020년에는 16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14> 세계관광총량 전망(WTO)

| 구 분 | 1997 | 2000 | 2010 | 2020 | 년평균증가율 |
|---|---|---|---|---|---|
| 관광활동량(억명) | 6.1 | 7.0 | 10.5 | 16.0 | 4.2% |

· 일본의 2020 Outbound: 1억4천만명-세계 2위
· 중국의 2020 Outbound: 1억명-세계 4위

WTO에 따르면 21세기에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며, 기존의 단순한 여행행태에서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행의 행태측면에서는 장거리여행과 장기여행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 95년의 18%에서 2020년에는 24%가 될 것이다. 단체여행보다는 개별여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대표적인 관광행태로 문화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 크루즈관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후진국의 구분 없이 문화를 수출하기 위한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문화상품화가 증진될 것이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지역간, 문화간 격차가 좁아져 관광홍보 및 예약시스템의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고 새로운 관광업종이 발생할 것이다.

1996년 외래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는 프랑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순이었으나, 2020년에는 중국이 1억 3,7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세계 1위의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1억 204십만명, 프랑스 9,330만명, 스페인 9,100만명, 홍콩이 5,9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중국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며, 러시아도 성장가도에 진입하여 세계 최대관광지 10위권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적지 않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다.

<표 1-15> 세계 관광환경 변화분석

| 분야 | 환경변화 | 관광에 대한 영향 |
|---|---|---|
| 정치 | · 국제정치의 중심축이 양국에서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다극화 | - 대립의 해소로 국가간 관광객 이동자유 확대<br>- 국가간 교류 저해요인 감소로 관광객증가 기대 |
| | · 중국의 역할 증대 | - 중국의 입·출국 관광객 규모 증가 |
| | · 국지적 분쟁 및 테러의 확산 | - 국제관광에서 안전문제 대두 |
| | · 실리위주의 외교정책 | -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 의지 강화와 국가간 경쟁심화 |
| 사회·문화 | · 환경의 중요성 대두 | -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심 대두 |
| | · 사회변화에 따른 신세대 등장과 고령화, 고학력화, 독신자 증가 | - 특별관심 관광시장의 확대<br>- 실버산업의 확대 및 새로운 관광수요 계층 등장 |
| | · 여가 선용 욕구의 증가 | - 여가욕구의 다양한 분출로 여가공급체계의 고도화 필요<br>- 골프, 스키, 낚시, 래프팅, 열기구,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동성 관광행태 증가 |
| | · 국가간 문화교류확대 및 자국 문화의 상품화 경향 강화 | - 선진국, 후진국의 구분 없이 문화를 앞세운 국제적 경쟁시대의 도래<br>- 각국의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문화상품화 증가 |
| | · 컴퓨터에 의한 정보사회화 진전 | - 관광홍보활동 및 예약시스템의 새로운 영역 발생<br>- 인터넷 여행업 등 새로운 관광업의 등장 |
| | ·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관심고조 | - 다양한 욕구로 인한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 관심여행(SIT) 부각 |
| 경제 | · 세계경제체제의 재편성과 자본 및 인적교류의 자유화<br>· 다국적 기업 경영방식의 확대 | - 국제관광객의 증대<br>- 국제간 전략적 제휴, 투자, 인수합병 확산<br>- 국내관광산업에 대한 해외자본 유입확대 |
| | · 아시아 금융대란 및 세계경제공황 | - 국가간 관광부문을 통한 외화획득 노력 증대 |
| | · 21세기 주도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의 부상 (Triple-T산업의 급부상) | -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로 세계 각국의 관광산업 증진 및 투자 확대 |

자료: 문화관광부, 문화관광 비전21, 1999, p.7

송출 측면에서는 1억 6,350만명의 독일인이 해외여행을 함으로써 세계 제1의 관광객 송출국은 독일이 될 것이다. 일본은 1억 4,150만명으로 2위를, 미국이 1억 2,330만명으로 3위를, 중국이 1억명으로 4위를, 영국이 9,610만명으로 5위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16> 2020년 세계 최대의 관광국

| 순위 | 관광목적국 | | | 관광송출국 | | |
|---|---|---|---|---|---|---|
| | 국가명 | 관광객 (백만명) | 1995-2020 연평균성장률(%) | 국가명 | 관광객 (백만명) | 시장점유율(%) |
| 1 | 중국 | 137.1 | 8.0 | 독일 | 163.5 | 10.2 |
| 2 | 미국 | 102.4 | 3.5 | 일본 | 141.5 | 8.8 |
| 3 | 프랑스 | 93.3 | 1.8 | 미국 | 123.3 | 7.7 |
| 4 | 스페인 | 71.0 | 2.4 | 중국 | 100.0 | 6.2 |
| 5 | 홍콩 | 59.3 | 7.3 | 영국 | 96.1 | 6.0 |
| 6 | 이탈리아 | 52.9 | 2.2 | 프랑스 | 37.6 | 2.3 |
| 7 | 영국 | 52.8 | 3.0 | 네덜란드 | 35.4 | 2.2 |
| 8 | 멕시코 | 48.9 | 3.6 | 캐나다 | 31.3 | 2.0 |
| 9 | 러시아 | 47.1 | 6.7 | 러시아 | 30.5 | 1.9 |
| 10 | 체코 | 44.0 | 4.0 | 이탈리아 | 29.7 | 1.9 |

자료: WTO, Tourism 2020 Vision, Executive summary, p.4

### (3)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광전망

1998년 전체 관광객 6억 1,300만명 가운데 9,020만명을 유치해 전년 대비 1.14% 증가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은, 2020년에 이르러서는 전세계 관광객 중 29%인 4억 6천 2백만명의 국제관광객을 유치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과거 10년동안 세계관광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과 중국과 호주 등의 관광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의 관광시장은 날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WTO의 관측이다.

이 지역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관광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주지역이지만, 점유율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외여행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1995년 전체 해외여행자 중 80%가 역내를 여행했으며, 2020년에 이르러서는 해외여행자 중 83%가 역내를 여행하게 될 것이라고 WTO는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관광을 이끌어갈 국가로는 우선 중국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중심국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0위권에는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17>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방문관광객 10위 국가

| 구 분 | 2020년(백만명) | 1995-2000 년평균 증가율 |
|---|---|---|
| 중국 | 130.0 | 7.77 |
| 홍콩 | 56.6 | 7.09 |
| 태국 | 36.9 | 6.91 |
| 인도네시아 | 27.4 | 7.66 |
| 말레이시아 | 25.0 | 4.96 |
| 호주 | 17.6 | 6.40 |
| 싱가포르 | 15.4 | 3.55 |
| 베트남 | 13.5 | 9.65 |
| 필리핀 | 11.3 | 7.72 |
| 한국 | 10.3 | 4.11 |

자료: WTO, Presentation of the update conclusions & Recommedations of the Tourism 2020 Vision study, Far EAST ASIA & The Pacific 1999.5

### (4) 방한 외래관광객 전망

70-80년대 외래 관광은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의 중추이자 외화획득의 주된 수단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방한 외래관광객의 증가율 감소와 내국인의 해외 여행 급증으로 인해 전체 관광수지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96년중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3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375만명에 비해 1.8%가 감소했고 '96년 관광수지 적자는

<표 1-18>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에 대한 영향

| 분야 | 환 경 변 화 | 관광에 대한 영향 |
|---|---|---|
| 정치 | · 국내정치의 민주화와 선진화 진전 | - 사회 각분야의 균등 발전으로 관광산업의 발전기반 확대 |
| | · 남북한 교류확대 | - 남북관광교류 확대(금강산 유람선 관광 등) |
| | · 한·중관계의 개선 | - 중국 관광객 대폭 증가 예상<br>* 해외여행 자유국가로 한국 지정 |
| | · 지방화 시대 정착 및 이에 의한 정부의 권한 이양 | - 지자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관광을 통해 실현하려는 분위기 확산 |
| 사회·문화 | ·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령화 사회의 진전 | - 복지관광 차원에서 노인계층에 대한 여가기회 확대 필요 |
| | · 환경보전문제에 대한 관심고조 | - 관광자원 개발시 제약요건 심화<br>- 새로운 형태의 관광유형(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등)에 대한 관심 고조 |
| | · 여가지향형 혹은 노동 · 여가 동시 중시형 가치관의 확산 | - 가족단위 관광확대<br>- 여가관광시장의 증대<br>- 참여, 체험관광객의 증대 |
| | ·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 증대 | - 문화지향적 관광상품 선호 증대 |
| | · 전국의 1일 생활권 시대 | - 일일관광의 확산 가능성 심화 |
| 경제 | · IMF 경제난 | -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국내 관광수요 위축 (해외여행 감소 추세)<br>- 환율 상승으로 국제 가격경쟁력 향상<br>-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의 위상 제고<br>- 국내투자자본의 감소로 외국자본유치 필요성 대두<br>-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기대고조 |
| |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신종산업의 등장 | - 관광산업의 영역 확대 및 고용규모 확대 |
| | · 정보산업, 관광 · 여가산업 등 선진국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급증 | - 관광에 대한 수요증대로 전산업 부문에서 관광산업 비중 확대 |

자료 : 문화관광부(1999.1), 관광비전 21, p.7

15억달러에 달하였다. '98년부터 국내 경기의 불안과 해외 여행 자제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관광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하여 내국인의 국외 여행 수요를 감소시키고 동아시아 지역내 입국 수요를 극대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19> 외래 방한객 추이

| 구분 | | 1985 | 1990 | 1995 | 1998 |
|---|---|---|---|---|---|
| 총 외래 관광객 수 | | 1,426,045 | 2,958,839 | 3,753,197 | 4,250,216 |
| 주요 송출국 | 일본인 방한객수 | 166,523 | 1,461,291 | 1,667,203 | 1,954,416 |
| | 미국인 방한객수 | 105,617 | 315,988 | 358,872 | 405,735 |
| | 아시아전체 방한객수 | 883,334 | 2,038,236 | 2,544,566 | 3,029,330 |

□ 추정방법 및 결과

출입국 인원자료를 바탕으로 일변량 시계열 분석자료를 토대로 외래 관광객을 추정하였다.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 중 본 보고서에서는 선형 추세법(Linear Trend Analysis), 단순지수평활법(Simple Exponential Smoothing), 브라운 이중지수평활법( Brown's Double Exponential Smoothing), 홀트 선형지수평활법(Holt's Linear Exponential Smoothing), 윈터스의 가법지수평활법(Winter's Method-Additive), 윈터스의 승법지수평활법(Winter's Method-Multiplicative), ARIMA 변동 모형 가운데 예측 타당도가 가장 높은 모델을 구하여 제시하였다. 예측 방법 선택에서는 평균 절대 백분비 오차(MAPE)을 척도로 하였다.

<표 1-20> 외래 방한객 전망

| 구분 | | 1998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
| 총 외래 관광객 수[1] | | 4,250,216 | 4,846,026<br>*481만명<br>**516만명 | 6,344,071<br>*617만명<br>**658만명 | 7,842,116 | 9,340,161 | 10,838,206 |
| 주요 송출국 | 일본인 방한객수[2] | 1,954,416 | 2,132,661 | 2,479,677 | 2,913,446 | 3,347,215 | 3,780,984 |
| | 미국인 방한객수[3] | 405,735 | 456,414 | 533,746 | 611,078 | 688,410 | 765,741 |
| | 아시아전체 방한객수[4] | 3,029,330 | 3,560,065 | 4,931,306 | 6,302,546 | 7,673,787 | 9,045,028 |

주: * 한국관광공사의 전망으로 예측 방법은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고, 이용 변수는 한국 환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객, 더미 변수 등이다. (문화체육부, 관광진흥 10개년 계획 세부추진검토보고서, p25),

**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 장단기 수요 예측, 1997: 예측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단기 수요 예측치(평균 환율 1,500/$)를 이용하여 장기 수요 예측을 실시함.

# 아시아 전체의 방한객에는 일본인 방한객이 포함됨

1) 방한외래객 총량 : 브라운 이중지수평활법 MAPE:3.544 $\alpha$=0.864
2) 일본인 방한객수 : 브라운 이중지수평활법 MAPE:26.912 $\alpha$=0.429
3) 미국인 방한객수 : 선형추세분석법 MAPE:13.308 Y=147087+15466X
4) 아시아 전체 방한객수 : 브라운 이중지수평활법 MAPE:6.487 $\alpha$=0.758

### (5) 국민의 국외 관광활동량 전망

#### □ 추정방법 및 결과

이용 가능한 자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변량 시계열 분석을 택하여 국민의 국외 관광 활동량을 추정하였다.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 중 본 보고서에서는 선형추세법(Linear Trend Analysis), 단순지수평활법(Simple-Exponential Smoothing), 브라운이중지수평활법(Brown's Double Exponential Smoothing), 홀트선형지수평활법(Holt's Linear- Exponential Smoothing), 윈터스가법지수평활법(Winter's Method-Additive), 윈터스승법지수평활법(Winter's Method-Multiplicative), ARIMA 변동 모형 가운데 예측 타당도가 가장 높은 모델을 구하여 제시하였다. 예측 방법 선택

에서는 평균 절대 백분비 오차(MAPE)을 척도로 하였다.

MAPE의 예측 능력 평가

MAPE<10% : 매우 정확함

10%≦MAPE<20%: 정확함

20%≦MAPE<50:보통

50%≦MAPE : 부정확함

<표 1-21> 국민 해외여행 추이

| 구분 | | 1985 | 1990 | 1995 | 1998 |
|---|---|---|---|---|---|
| 총 출국자수 | | 484,155 | 1,560,923 | 3,818,740 | 3,066,926 |
| 주요 목적지별 | 일본 | 169,823 | 782,782 | 1,000,190 | 822,358 |
| | 아시아 | 312,599 | 1,177,089 | 2,448,868 | 1,915,864 |
| | 미국 | 105,617 | 259,853 | 657,804 | 425,330 |

활동량은 주요 국가별, 그리고 총량을 그간의 변화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국민의 해외 여행은 1998년 현재 307만명에서 2000년에는 564만명에 이를 것이며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1,2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및 국가별로 보면 일본과 미국으로의 출국자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고 아시아지역으로의 출국수가 국민의 해외 여행량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2> 국민해외관광객 전망

| 구분 | | 1998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
| 총 출국자수[1] | | 3,066,926 | 5,643,316<br>*678만명<br>**318만명 | 7,477,328<br>*986만명<br>**565만명 | 9,311,340 | 11,145,352 | 12,979,364 |
| 주요 목적 지별 | 일본[2] | 822,358 | 1,237,432 | 1,422,115 | 1,606,789 | 1,791,480 | 1,976,163 |
| | 아시아[3] | 1,915,864 | 3,427,432 | 4,382,282 | 5,337,132 | 6,291,982 | 7,246,832 |
| | 미국[4] | 425,330 | 1,187,584 | 1,689,902 | 2,192,220 | 2,694,538 | 3,196,855 |

주: * 문화체육부의 회귀 분석을 이용한 예측이며, 이 때 이용 변수는 한국 환율, 아시아 태평야 지역 관광객 , 더미 변수 등이었다.(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 관광진흥10개년 계획 세부추진계획 검토보고서, 1997, p. 25)

** 한국관광 연구원의 수요 예측 결과임:한국 관광연구원, 한국관광 장단기 수요 예측1997, pp.30-31; 기존의 추세를 바탕으로 브라운 선형 지수 평활법 ($\alpha$=0.85, MAPE는 6.0)

1) 국민 해외 관광 총량 전망 예측은 홀트 선형 지수 평활법
MAPE: 10.974 $\alpha$=0.999, $\beta$=0.369
2) 일본으로 국민 해외 관광객 전망 예측은 홀트 선형 지수 평활법
MAPE: 11.212 $\alpha$=0.999, $\beta$=0.565
3) 미국으로 국민 해외 관광객 전망 예측은 홀트 선형 지수 평활법
MAPE: 8.683 $\alpha$=0.999, $\beta$=0.377
4) 아시아 지역으로의 국민 해외 관광객 전망 예측은 홀트 선형 지수 평활법
MAPE: 11.329 $\alpha$=0.999, $\beta$=0.436

<표 1-23> 외래 및 국민해외 관광객 전망

(단위: 만명, %)

| 구분 | 1998 | 2005 | 2010 | 2020 | 년평균증가율 |
|---|---|---|---|---|---|
| 외래관광객 | 425 | 630 | 780 | 1,100 | 4.3 |
| 국민해외관광객 | 307('97:454) | 750 | 930 | 1,300 | 6.6 |

### 2) 여가시간의 증대와 관광패턴의 다양화

#### (1) 여가시간의 증대

여가시간이 일과생활을 위한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비구속시간 이라고 본다면 근로시간의 변화는 여가시간의 변

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제조업 기준으로 1981년 53.1시간에서 1997년 47.8시간으로 약 5.3시간이나 짧아졌다. 그러나 선진국의 40시간 내외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아직도 20%이상 많은 시간이다.

<표 1-24> 각국의 근로시간 변화

|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
| 1981 | 53.1 | 39.7 | 41.2 | 41.6 | 40.7 |
| 1986 | 54.7 | 40.7 | 41.1 | 40.4 | 38.7 |
| 1991 | 49.2 | 40.7 | 40.0 | 39.2 | 38.7 |
| 1996 | 48.4<br>(47.8) | 41.6 | 38.2 | 37.4 | 38.6 |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7

그러나 근로시간의 단축은 대부분 여가시간의 증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여가부분의 활동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겠다.

2010년과 2020년의 우리나라 1인당 소득전망치(18,000달러, 37,000달러)와 선진국이 동일한 소득수준시 근로시간의 형태를 보면 우선 2010년 목표치인 18,000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1987년에 41.0시간, 일본 1987년 41.3시간, 독일 1990년 39.5시간, 프랑스 1990년 38.8시간으로 18,000달러 내외 소득에서의 근로시간은 38~41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0년 목표치인 37,000달러 수준으로는 일본이 1994년 37.6시간이고, 기타 국가는 아직 37,000달러 소득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비교가 불가능하나 1996년 현재 미국이 28,000달러에 41.6시간, 독일이 29,000달러에 37.4시간, 프랑스는 26,000달러에 38시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37시간~40시간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5> 선진국의 소득수준별 근로시간의 비교

| 구분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
| 18,000불 | 41.0 | 41.3 | 39.5 | 38.8 |
| 37,000불 | 41.6<br>(28,000불) | 37.6 | 37.4<br>(29,000불) | 38.5<br>(26,000불) |

주: 18,000불과 37,000불은 2010년과 2020년 각각의 우리나라 1인당 GDP 예측치임(경상가격)

이러한 선진국의 실태와 그동안의 근로시간 변화 등을 고려하면 2020년에는 근로시간이 38시간 정도로 줄어들고 자유시간은 현재보다 6.9시간 많은 47.8시간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표 1-26> 주간생활시간 변화전망

단위 : 시간

| 구 분 | 1997 | 2010 | 2020 | 비고 |
|---|---|---|---|---|
| 생활필수시간 | 74.1 | 75.5 | 76.0 | 수면,식사 등 |
| 구 속 시 간 | 53.0<br>(47.8) | 47.3<br>(41.3) | 44.2<br>(38.0) | 일, 학업, 통근, 통학 등<br>(노동시간) |
| 자 유 시 간 | 40.9 | 45.2 | 47.8 | 기타 |

주: 1996년 자유시간 중 문화·관광관련 활동은 26.5%, 기타는 TV시청, 수면 및 가사잡일 등

### (2) 다양한 관광활동의 변화

#### □ 휴가형태의 다양화

여가시간의 증대는 우리생활속에 휴식규범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우선 휴가, 휴일제도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주 2일 휴가제는 벌써부터 일부에서 시행에 들어갔으며 휴가시간도 점차 장기화하고 년중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기업에서도 휴식을 겸한 직원 연수를 위해 휴양지에서의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세미나, 학

회 등의 활동 역시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일부 선진 유럽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관광활동에 대한 연금지원이라든지 학교방학의 분산운영 등 다양화하는 현상이 예견된다.

□ 개성적 활동의 증대

최근 사회적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노동중심적 가치관에서 여가중시형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IMF의 경제위기로 인해 과거의 대규모 소비지향에서 실리형 소비지향으로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서 사회 여러 방면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과거 시설중시의 여가생활에서 문화지향적 여가생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문화와 더불어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여가행태는 다양화, 소규모화, 독창적 개성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관광, 문화관광, 모험관광 등 다양한 활동이 급성장할 것이다.

또한 환경과 자연지향적 가치관의 변화로 여가관광활동에서 자연을 선호하게 될 전망이고, 또한 경제적 윤택함과 함께 건강한 여가를 중시함으로써 보양관광 활동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산과 강, 계곡과 바다 등 자연속에서 농·림·어업활동을 체험하는 Green Tourism이 크게 각광받을 전망이다. 한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해양활동의 수요와 행태도 크게 달라질 전망인 바 종래 해수욕중심의 해양활동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기반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요트, 스킨-스쿠버 등 활동이 4계절로 이용될 전망이다.

<미국인의 수변 위락활동>

미국인의 야외 위락활동의 성장률을 보면 동계위락 다음으로 수변 위락활동이 2.06배나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표> 미국인의 야외 위락활동의 성장에 대한 변화 전망(1997년)

| 구분 | 1997 | 2000 | 2010 | 2020 | 2030 |
|---|---|---|---|---|---|
| 육상위락활동 | 100 | 111 | 121 | 149 | 161 |
| 수변위락활동 | 100 | 118 | 134 | 181 | 206 |
| 동계위락활동 | 100 | 123 | 143 | 207 | 240 |
| 인구 | 100 | 112 | 120 | 134 | 139 |

자료: GISCO Homepage, News 심층분석, 1999.

□ 우리만의 세계적 희귀자원에 대한 이용관심 증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우리의 여가활동은 환경친화적이고 문화지향적 성향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따라서 그 대상자원과 공간은 지금까지 크게 중요시되지 못하였던 대상들 중에서 앞으로는 크게 각광받는 대상으로 부각될 자원이 나타날 것이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희귀하거나 우리만이 갖고 있는 갯벌, 공룡화석, 고인돌, DMZ 등은 향후 여가활동의 대상자원으로서 특히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갯벌의 넓이는 남한의 경우 약 2,800㎢이다. 이는 남한 면적의 3%에 해당하는 넓이이며 세계적으로는 제5위 정도의 갯벌보유국가이다. 이중 서해안에는 83%, 2,300㎢가 있으며 남해안에 나머지 17%에 해당하는 480㎢가 있다. 갯벌의 기능에는 자연정화기능, 수산물생산기능, 어류의 서식 기능, 갯벌의 농업적 이용 등의 기능이 있으나 미래에는 심미적이고 환경적 가치가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8] 따라서 새로운 여가활

8) 갯벌의 심미적 가치는 에이커 당 80$내지 330$정도로 평가되고 있음

동의 주요 대상지로서 갯벌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질구조상 중생대, 고생대의 지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당시 서식동물인 공룡의 발자국과 공룡알 그리고 뼈 등이 발견되고 있다.[9]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일로 학술적 중요성 뿐만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선사시대의 기념물로서 고인돌을 들 수 있다. 고인돌은 선사시대 묘지로서 우리나라에는 총 25,000여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전라남도지방에 약 20,000여기가 집중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유일의 인공적 생태보전지역으로서 대치중인 군사환경과 함께 이용도가 증가될 DMZ가 있다. 이렇듯 우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희귀자원들은 향후 우리나라 문화관광여건의 큰 잠재력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 다양한 개발수요의 증대

이러한 여가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개발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소득이 높아지면서 1가구 2주택의 세컨드하우스의 소유가 크게 늘어나고 첨단정보화산업의 발달로 재택근무 등 근무행태도 크게 바뀔 전망이어서 자연과 좀더 가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또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개발수요에서 소외되었던 산지와 해안 경관지역에 대한 별장, 주택, 사무실 등의 입지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부, 1999)

9) 공룡발자국은 강화, 영암, 경남 고성,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견되어 일반인에게 관람이 허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양지역에서 공룡알이 출토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3) 향토문화·역사의 인식증대와 국제적 문화상품화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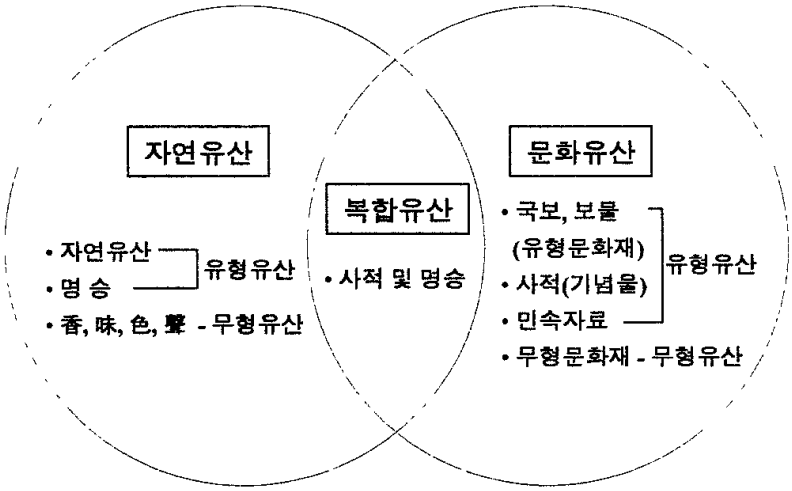
#### (1) 향토문화·역사의 문화상품화

21세기에는 세계가 문화전쟁시대에 돌입될 전망이다. 모든 국가와 지역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을 기억할 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의 자연환경과 문화이다. 따라서 문화는 그 지역사람에게는 지역의 자긍심과 향수, 그리고 그리움으로 연상되며 외지인에게는 지역의 이미지, 이국적 향취 또는 막연한 동경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추세속에서도 국가나 지역이 갖는 독특한 역사와 전통성 그리고 문화적 개성은 매우 차별화되어야 하며 이를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유산, 문화자원의 관광화는 필요한 것이다. 즉 향토성과 지역의 개성 및 다양성을 관광상품화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미쳐 깨닫지 못한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곳곳에 널려 있는 고인돌이나 크고 작은 사찰과 산자락에 매달려 있는 초라한 암자에도 역사와 유래가 있으며, 들가에 서 있는 정자나 노송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가 우러나는 서적이나 고문서, 회화, 조각, 전적, 공예품 등 많은 유형문화재와 더불어 명승절경이나 신명나는 풍물과 소리가락, 춤사위나 노래가락, 시가, 창 등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정신문화 또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관광자원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답사여행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물질위주의 성장이 정신문화에 취약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고, 물질문명의 풍요가 정신문화를 살찌울 수 없다는 반성과 자각이 일깨워 지면서 문화답사 여행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에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관심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ism)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지향적 관광상품의 선호는 날로 크게될 전망이다. 따라서 잊혀지고 묻혀진 우리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고증과 의미부여, Story Telling 작업 등이 이루어질 때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제고와 더불어 관광전망도 대단히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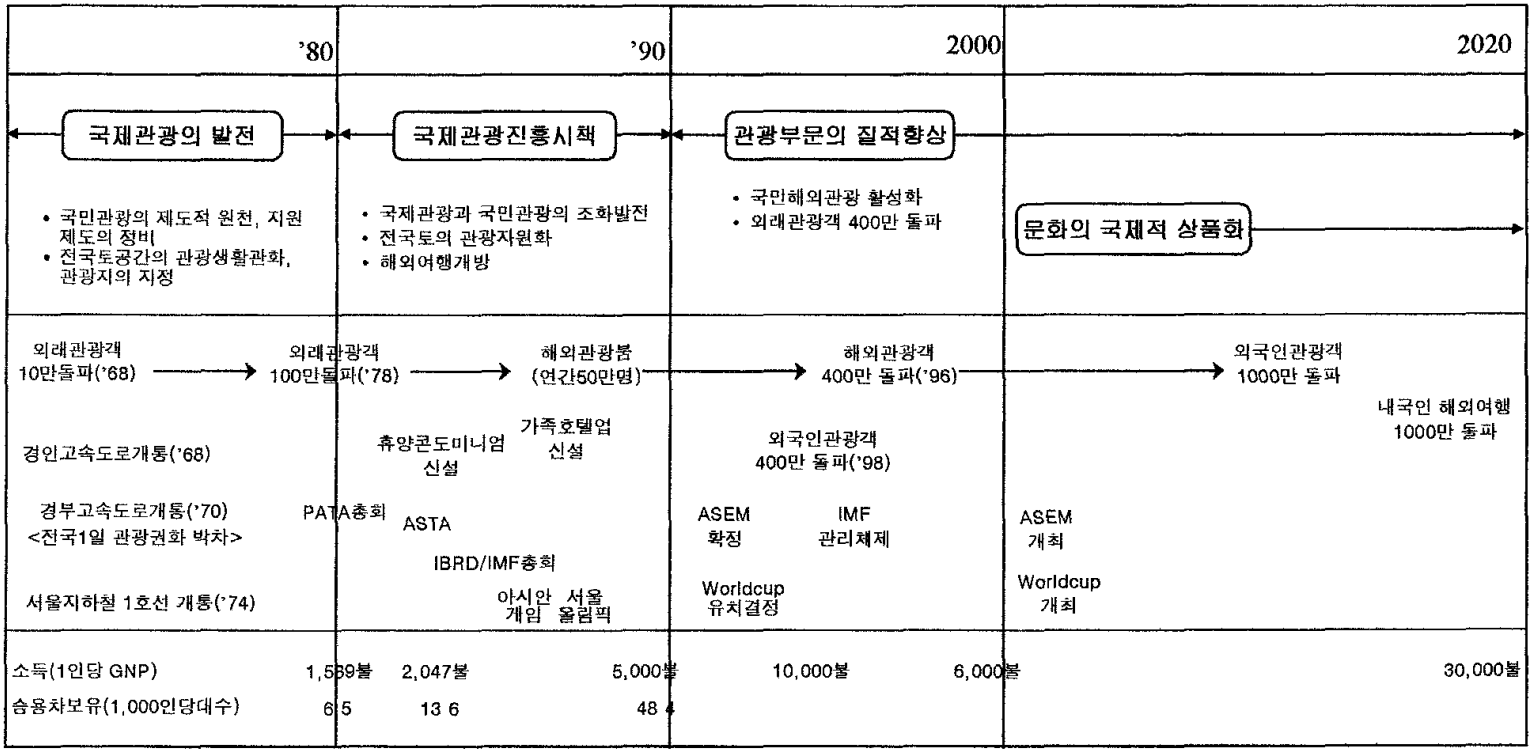

<그림 1-1> 문화유산에 관한 참고자료

(2) 문화관광정책의 전환

1960년대의 경제정책과 그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관광·위락과 관련된 제반환경의 변화는 관광·위락공간에도 투영되었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국토계획아래에서 관광·위락 정책은 외화 획득을 위한 기반 구축, 외래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이 기조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경주보문단지가 개발되고 설악산 등의 관광자원이 개발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양과 질

10) 이병훈, 문화유산과 관광, 문화관광진흥 대토론회, 1999. 5. 4

<그림 1-2> 문화관광정책의 변화전망



양자가 정책의 방향이었고 관광정책 또한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민관광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골프와 스키 등 고급스포츠 활동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관광정책은 문화중심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우리의 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문화관광으로 시각의 변화가 시초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에는 이미 조성된 관광위주공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문화중심의 국제적 상품화를 추진하고 이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2010년대에는 본격적인 문화관광의 정착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시기가 되면 종래 관광활동과 문화활동의 구분이 없어지고 관광과 문화가 하나로 장르화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4) 문화·관광의 사회적·경제적 비중 증대

소득이 향상되고 자유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예술부분의 향수를 느끼는 계층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문화·예술활동도 빈번하여 생활화되는 현상이 전망된다. 특히 입시위주의 문화·예술부문투자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기간이 오면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우선순위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생활주변에는 전시 및 공연활동이 급증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활동공간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적 감각과 수준이 높아져서 도시개발이나 건축 부문에서도 선진외국에서와 같은 예술적 문화표현이 강렬해 짐으로써 우리의 실질생활에는 문화·예술의 혜택을 느끼게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활동의 증가는 이들 활동과 이용을 위한 각종 SOC의 공급량

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물류수송과 경제활동 위주의 SOC 공급이 대부분이었으나 소득과 여유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의 가치관도 변모하여 문화관광활동의 편리성과 질적 만족감을 추구케되고 이에 따른 SOC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도로, 연육·연도교, 공항, 항만 등 문화·관광부문의 개발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관광개발사업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개발의 전·후방효과가 높고, 특히 재원이 부족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키 어려운 낙후지역에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낙후지역, 조건불리지역 등에서는 고급인력을 확보한다든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조업 등의 산업을 유치하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짐으로 그 동안 지역적 여건으로 오히려 잘 보전되어온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상품화하여 지역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이용하려는 지자체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 여 백

제2장

# 계획의 기본방향

## 1. 계획의 기조

**국제적 문화·관광기반의 확충**

- 한국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동북아의 대표적 문화·관광 국가로 도약 -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관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향후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요한 경제 거점지역이며 동시에 환태평양내에서 아시아적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문화거점지역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간에 특색있는 문화 및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미흡하였고, 세계수준의 한국적인 관광자원의 발굴과 확충이 절박하다. 중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하여 세계로부터 중국과 일본의 아류처럼 인식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주변국가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 경험이 많지 않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관광자원의 교류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문화·관광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 중심에 위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과 잠재력은 크

게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문화·관광의 수준높은 공급시스템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적 문화·관광활동을 증진시켜 경제적 효과도 노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 2. 기본방향

### 1)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

21세기에 문화·관광활동은 국민복지의 향유로서 국민의 기본권적 수요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국토를 공원화하고 문화·관광자원을 골고루 개발함으로서 국민 모두가 이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토공간 전지역에 산재한 문화 및 관광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권역을 설정하여 개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문화활동과 관광활동이 밀접하게 연계될 전망임을 감안하여 문화권과 관광권이 일체화되도록 권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대도시권 주변지역은 대도시권이 대량화, 동시화, 다층·다양화하는 문화·관광수요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관광자원 및 시설의 개발과 배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전략적 문화·관광지역의 개발

우리나라의 지경학적 잇점을 살려 동북아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고유의 자연적·문화적 장점을 살리는 국제적 문화·관광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 동북아내 일본·중국과는 다른 고유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자연환경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협력사업, 동북아차원의 국제관광지역의 공동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고 부족한 문화·관광잠재력을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지자체간의 지역간 공동개발을 통해 개발의 시너지 효과

를 증대하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역간 공동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 3)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상품의 개발

국제관광기반조성이란 외지인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편히 쉬고 즐기고 먹고 또 살 수 있는"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지방문화의 토착화로 외지인에게 색다른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둘째, 도시의 관광거점기능 강화로서 외지인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외국인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넷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정보화 기반의 구축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문에 있어서 국제적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컨벤션산업, 생태관광 등 국제적 조류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의 조기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광의 세계화전략은 비교우위를 가진 관광자원의 개발이다. 관광객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체험하지 못하였던 문화와 자연과 서비스 그리고 기념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즐겁고 쾌적하여야 한다. 관광객의 욕구는 관광객의 숫자만큼 다양하다. 관광객의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의 토속 자원 가운데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손색이 없는 세계화가 가능한 자원을 상품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토속적인 문화를 발굴, 복원하여 관광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는 문화를 집대성한 민속촌 또는 역사문화촌을 건설하여 관광상징물화하고 관광의 전략거점으로 삼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특정 이벤트와 민속문화 그리고 민박촌 등을 연계하게 되면 더욱 특징적인 관광상품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 자원의 국가간, 지역간 비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비교우위를 확인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4)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사업의 추진은 궁극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때문에 민간의 지나친 이윤추구는 개발효과를 떨어뜨리고, 지역활성화를 역행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기 쉽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지역의 문화와 자원잠재력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산업이 지역 정주화의 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개발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분담하게 되고 민간자본의 건전한 투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관광 인프라는 도로나 시설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관광활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적 기반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소프트 부문과 하드웨어부분을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벤트, 편의시설 공급, 문화관광환경 조성 등 사업과 행·재정적 지원이 동시에 고려된 일체의 지원체계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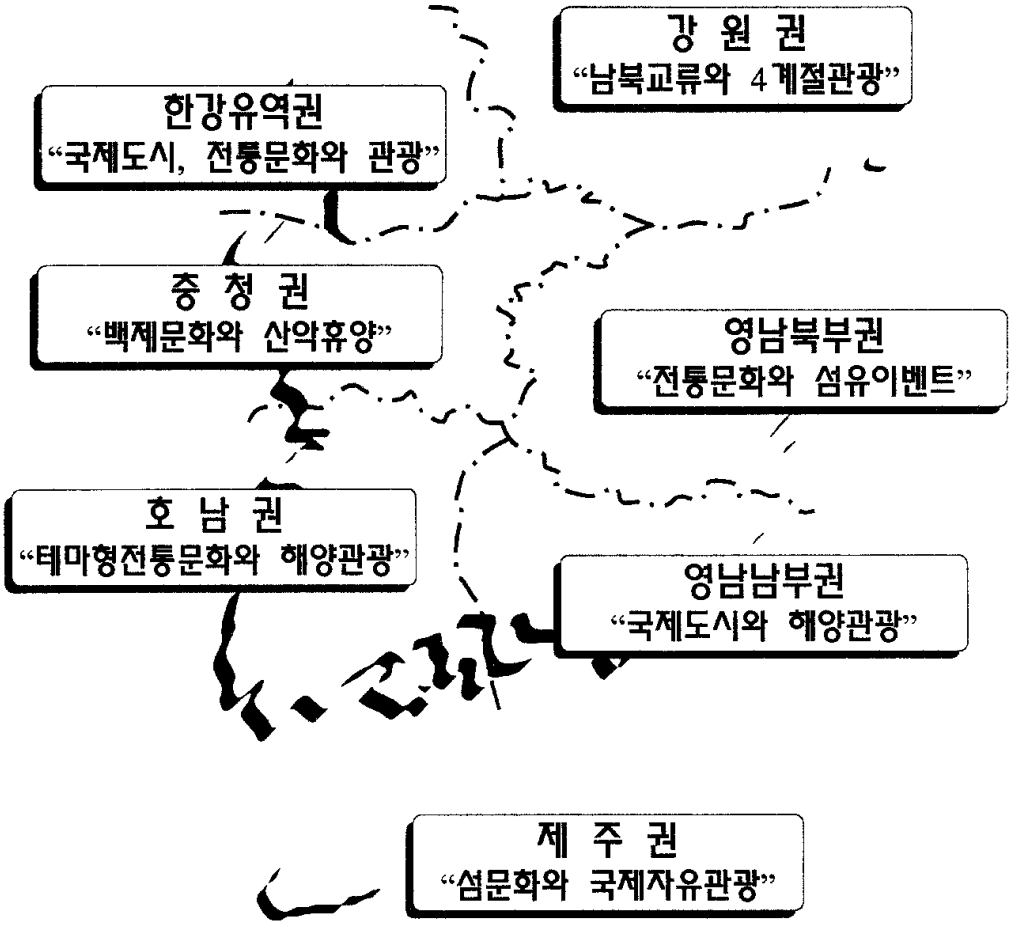
#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

## 1. 문화 및 관광자원의 특성을 감안한 문화·관광권의 설정

전국에 걸쳐 분포한 문화·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간의 연계성, 루트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권역을 구분하여 개발·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문화·관광자원의 특성, 상품화가 가능한 자원의 집적성, 관광객의 행태, 접근교통수단 및 체계, 그리고 행정 및 관리의 편의성(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7대 문화·관광권을 설정하였으며 지역마다 특색있는 개발을 위해 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한다.

<표 3-1> 7대 문화·관광권 및 특화주제

| 문화관광권 | 특화주제 | 해당 광역지자체 |
|---|---|---|
| 한강유역권 | 국제도시, 전통문화와 관광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강 원 권 | 남북교류와 4계절관광 | 강원도 |
| 충 청 권 | 백제문화와 산악휴양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호 남 권 | 테마형 전통문화와 해양관광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 영남북부권 | 전통문화와 섬유이벤트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영남남부권 | 국제도시와 해양관광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제 주 권 | 섬문화와 국제자유관광 | 제주도 |




<그림 3-1> 7대 문화·관광권

## 2. 문화·관광권별 개발방향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자원의 특성을 구분한다면 우선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지역과 산업지대 그리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역과 3면의 해양지대 그리고 백제, 신라 등의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역사문화지대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문화·관광권은 지역의 문화관광수요, 이용권, 자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또 그 특성에 따라 특색있는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국제적 관문지역은 외국인의 수용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적 관광거점기지로 육성하고 신산업지대는 첨단산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산업관광지대로, 산지 및 해안자원지대는 휴양형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문화유적 자원이 많이 분포한 지역은 교육도장화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여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을 선도케하는 등 지역별로 특성있는 개발대안을 설정하여 국토상에서 다양한 문화·관광개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 한강유역 문화·관광권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을 지칭하는 한강유역권은 우선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항공과 해운의 충주관문지역이며, 백제를 시작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수도로서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깊은 지역이다. 동시에 접경지역이며 수많은 도서를 거느리고 있는 서해안지역 해양관광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중추관문기능을 활용키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박람회시설 및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풍의 호텔 등을 건설하여 수용기반을 확충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문화를 홍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전시장, 공연장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의 경관을 한국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만의 문화적 독창성과 우월성이 나타나도록 유도한다.

접경지역은 통일안보 및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특히 군사적 대치 상황을 DMZ지역의 생태환경과 연계하여 관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서해안의 강화, 옹진, 시흥, 화성 등 해안지역은 각종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복원·재현함으로서 우리 문화와 역사성을 표출하고 이를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리조트형 복합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도시적 문화·관광수요 및 외국인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내륙의

문화 및 자연지대에는 대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도시민 일상의 문화 및 관광·위락 활동을 위한 시설을 집중 배치토록 한다.

### 2) 강원 문화·관광권

강원도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악지역으로서 백두대간의 중심지역이다. 이와 함께 동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대이다. 최근에는 남북한간이 긴장이 완화되면서 금강산 관광 등의 시발지로서 남북한간 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권에는 동해해양자원과 백두대간의 산악·고원자원을 연계한 4계절형의 국제적 종합리조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양양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이 전제되고 내륙과의 연계교통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시킨다면 러시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안권의 관광거점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남북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남북한간의 문화·관광 교류거점을 확보하고 향후 증대될 대북한과의 교류증대에 대비한다면 강원권은 대북교류의 중추적 창구가 되어 해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육상으로서의 연계 개발과 이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 3) 충청 문화·관광권

충청남·북도가 포함되는 충청권은 백제문화권, 중원문화권 등 문화자원과 속리산, 월악산 등 내륙의 산악관광지대를 연계하여 문화·휴양지대로 육성한다. 특히 외국인과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장, 공연장, 민속촌 등을 집중 배치하고, 휴식시설을 확충한다.

백제문화권은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중원문화권지역은 충북의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

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한편 무주-속리산-화양계곡-월악산-소백산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내륙산악지대는 고원휴양지로 육성하되 인접 관광권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유도한다.

서산, 보령, 서천 등 해안지역은 인근 신산업지대 배후의 관광지역으로서 육성하되 특히 서해의 풍성한 해산물, 갯벌 등과 연계하여 생태적 관광휴양지대로 육성한다.

### 4) 호남 문화·관광권

호남권은 특히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 음식문화 등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를 이용한 테마형 관광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백제문화, 음식, 가사문학, 차문화, 도자기 순례 등 각종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용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테마여행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에는 공룡화석, 고인돌, 옹관고분 등 선사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한 테마파크의 건설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려한 경관과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남해안 지역은 국제관광벨트로 개발하여 국제적 관광단지를 배치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해양자원뿐만 아니라 내륙의 지리산, 월출산 등 산악자원과의 연계개발을 통해 국제적 종합리조트 지역으로 육성하고 도서지역 등 접근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항만 및 연육·연도교 등 접근시설을 대폭 강화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와 지역개발을 도모한다.

### 5) 영남북부 문화·관광권

경주의 신라문화권과 안동의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등 불교문화와 유교문화자원을 한 지역에 갖고 있어서 동북아 문화를 한번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대구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추지대로서 근대산업의 중심지로서 역사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

서 영남북부권 지역은 이들 문화와 산업을 이벤트와 연계한다면 지역의 문화·관광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지역이다.

안동중심의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지역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택, 종가, 정자 등 건축물과 농촌환경을 지역의 이벤트와 묶어서 테마화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루트를 개설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신라의 불교문화자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관광지로서 이의 역할을 유지해 나아가되 동해안의 해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종합휴양지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지역의 관광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환동해지역의 관광교두보로 개발하여 향후 지역의 국제간 관광경쟁에 대비한다.

### 6) 영남남부 문화·관광권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은 동·남해안의 천혜의 자연경관자원과 가야문화유적 그리고 부산의 관문기능과 울산의 산업지대를 묶어 국제적 해양문화관광리조트 지역으로 육성한다. 연육·연도교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특히 일본 등 인접 국가와의 교류증대와 공동개발을 통해 국제화를 유도한다.

한려해상권지역은 수려한 해양경관과 청정해역을 배경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특히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적 관광지대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지리산, 가야산, 가지산 등 내륙산악·고원지역은 대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육성하고 해양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한다.

### 7) 제주 문화·관광권

천혜의 한라산과 해양자원을 고유의 섬문화와 연계하여 동아시아의 대표적 국제관광지대로 육성한다. 특히 외국인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제관광자유지역화를 모색하고,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지로 발전

시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한라산과 고원지대는 생태적 유지와 복원, 경관향상을 위해 가급적 개발을 자제하고 제주 고유의 산업과 친환경적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국제관광지대로서 떨어지지 않는 목가적 관광지대로 육성한다.

## 3. 대도시지역의 관광레저공간 확충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하고, 여가행태가 대량화, 동시다발화하며 계층화가 뚜렷하여 다양한 자원과 시설의 공급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도시주변 1-2시간 거리에 휴식·위락 및 스포츠공간과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대도시지역에서 넘쳐나는 문화·관광 활동의 수요를 감당하도록 한다. 유치시설로는 주제공원, 동·식물원, 공연·전시장 및 각종 스포츠시설이며 자동차야영장, 임해리조트, 자연휴양림 및 임도 등을 이용한 자연탐방로의 설치가 그것이다.

또한 도시내에서도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오픈스페이스를 확대하는 등 녹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민이 무작정 시외로 나아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가 간선교통시설이 관광·위락활동객에게 점유되어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이전적지를 공원화하도록 유도하고 하천부지, 개발제한구역 등에 도시민의 관광·위락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도시공원과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내 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관광특구 형식의 특정관광구역을 지정한다든가 국제문화교류촉진지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즉, 이천 도예촌, 민속촌 등 독특한 생활상 및 산업활동이 표출되는 지역을 특정관광구역으로 지정·육성한다든지, 인사동, 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문화지역을 국제문화 교류촉진지역으

로 지정함으로써 결국 이들을 중심으로 도시내에 문화·관광거리가 조성되고 숙박, 쇼핑 등 관광객 이용시설이 집중되어 도시내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주변 도농간 연결지대에도 문화·관광적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도시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농촌소득을 증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문화가 동시에 어울려질 수 있도록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의 활성화지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학습형, 주말농장형, 심신수련형의 다양한 그린 투어리즘 활동시설을 배치토록 한다.

이밖에도 도시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동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심내 부족한 여가시설의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서관,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과 민간문화센터, 쇼핑센터, 주민자치시설과 연계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벤트형식의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문화·관광시설의 부족을 메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4장

# 전략적 문화·관광지대의 개발

## 1. 지역문화와 자연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지역의 개발

### 1) 문화권의 정비·개발

정부는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중원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역사상·학술상 또는 지정학상으로 공통적인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 권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서 문화권내 주요 유적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왔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 중심의 문화권과 함께 최근에는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나 역사, 동질적 환경 또는 생활양식 등으로 연결되는 일단의 지역을 문화권으로 묶어 정비코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화권정비사업이 단순히 문화재 중심의 정비·복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상, 지역의 환경, 독특한 자원 등을 중심으로 이를 정비·개발함으로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즉 종래에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였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코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백제, 신라, 가야, 중원문화권 이외에도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소멸과정과 그 전후사를 규명하여 문화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지역, 유교적 문화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안동유교문화권, 동질적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지리산문화권, 도서지역의 문

화와 해양문화를 정착시킨 다도해문화권, 제주도의 탐라문화권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권을 설정하여 정비·발전시키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강화도, 거제도, 완도·청해진 등 우리 민족의 중요한 전적지역을 복원하고 개발함으로써 교육과 문화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토록 유도하고 특히 테마파크화를 추진하여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유도한다.

### 2) 문화촌, 전통문화 학습장 조성

전통문화 관광자원의 개발에서는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양과 국제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전국의 문화유적을 종합적, 체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데 종래와 같이 과거유물의 단순한 전시에 그치거나 복원차원에 머무른다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을 것이다. 신라문화촌, 백제문화촌, 남도문화촌, 가야문화촌, 무속설화촌 등 문화관광촌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문화의 장소화를 실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민속촌, 도예촌, 문화유적지, 문화단지 등에 전통문화학습장을 개설하여 관광과 전통계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성하며 조선시대의 전통시장, 전국의 대표적인 5일장 등을 관광자원화한다. 향토의 유무형 자산을 지적재산으로 확보하고 적극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방안은 전향적이라 할 만하다. 포천 이동막걸리나 안성 유기, 이천·광주·여주 도자기, 남양주 먹골배 등 특정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전통 고유기술과 특산물 등도 적극 육성토록 한다.

### 3)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국토환경의 제고

문화환경의 근간은 문화향수를 갈구하는 주민에 대한 문화시설의 공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문화시설은 생활권단위의 복합문화복지공간으로서 뿐만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경쟁력

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 문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문화복지수요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화형평성, 문화시설의 복합화와 특성화의 선택, 문화시설간의 연계성, 분산과 집적의 선택, 문화정보 및 교육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친화적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계획 및 문화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문화시설 용지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관광자원은 활용성이 떨어져서 결국 본연의 자원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국토의 공원화는 문화·관광활성화의 전제가 된다. 우선 갯벌, 호수 등 습지와 자연경관지 및 관찰지역을 국·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전·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강, 금강, 만경강, 영산강, 낙동강 등 강과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하여 공원화하고 주민들이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워터프론트(water front)를 개발하여 주민들이 하천생태를 즐기며 오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동굴, 탐조지역, 샛강, 공룡화석지 등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으면서 관찰을 통한 교육적, 관광적 효과가 큰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으로 육성한다. 국토의 공원화를 확대하면서 이들 공원지역, 녹지지역 및 문화유적지를 연결하는 보도, 자전거도로, 수로, 임도 등을 개설하여 장기적으로는 전 국토를 연결하는 자연보도(natural trail)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연과 문화환경을 즐길 수 있는 환경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2. 남북협력 및 동북아 차원의 국제관광지역 개발

남북협력 문제는 비단 통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문화·관광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

개발사업은 환동해지역의 관광거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금강산과 설악산을 중심으로 원산-속초-강릉을 포괄하는 광역관광지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강산·설악산지역을 관광자유지역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금강산·설악산 지역의 공동개발 관리와 함께 DMZ지역의 평화생태관광루트의 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다. 비무장지대의 특성을 살리는 친환경적 국제테마관광루트로서 정비되고 상품화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제주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관광자유도시로서 육성한다. 제주도 전역을 무비자, 무관세혜택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관광지로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개발에 있어서 외자도입을 활성화하여 외국인의 즐겨찾는 국제적 관광지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 3. 지역간 공동개발사업의 추진

### 1)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등 해안벨트의 조성

남해안을 다도해와 한려해상 그리고 부산과 목포 등 도시가 연결되는 국제적 관광벨트로 육성한다. 이 지역에는 해양 관광자원, 수산자원 그리고 향토의 토속적 생활풍습과 음식이 어우러져 있어서 국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다. 또한 해양자원만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리산, 백운산 등 내륙의 산악자원과도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활동이 유도되도록 고려한다. 우선 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부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연결하기 위해 지역간 고속도로, 항만 및 공항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외자유치를 통해 활성화를 모색한다. 특히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인 돌출된 반도지역을 연결하는 연육·연도교를 건설함으로써 남해안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이러한 기반시설은 그 설치시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미관을 중시하고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도록 유도한다.

이밖에도 동해안과 서해안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상품화하고 관광기반시설 설치를 모색한다. 경기만, 태안반도, 전라남·북도 해안지대를 연결하는 서해연안관광벨트사업은 아산만, 군산·장항 등 서해안을 따라 개발되고 있는 신산업지대의 배후 관광지로서 그리고 아산항, 군장항 등 국제항만을 통한 환황해권의 국제적 관광지대로 육성한다.

강원해안, 경북해안지대, 울릉도와 독도로 연결되는 동해연안관광벨트사업은 금강산·설악산의 국제관광지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한다. 동해안지역은 러시아, 일본과의 교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어서 이를 이용한 환동해 관광권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할 지원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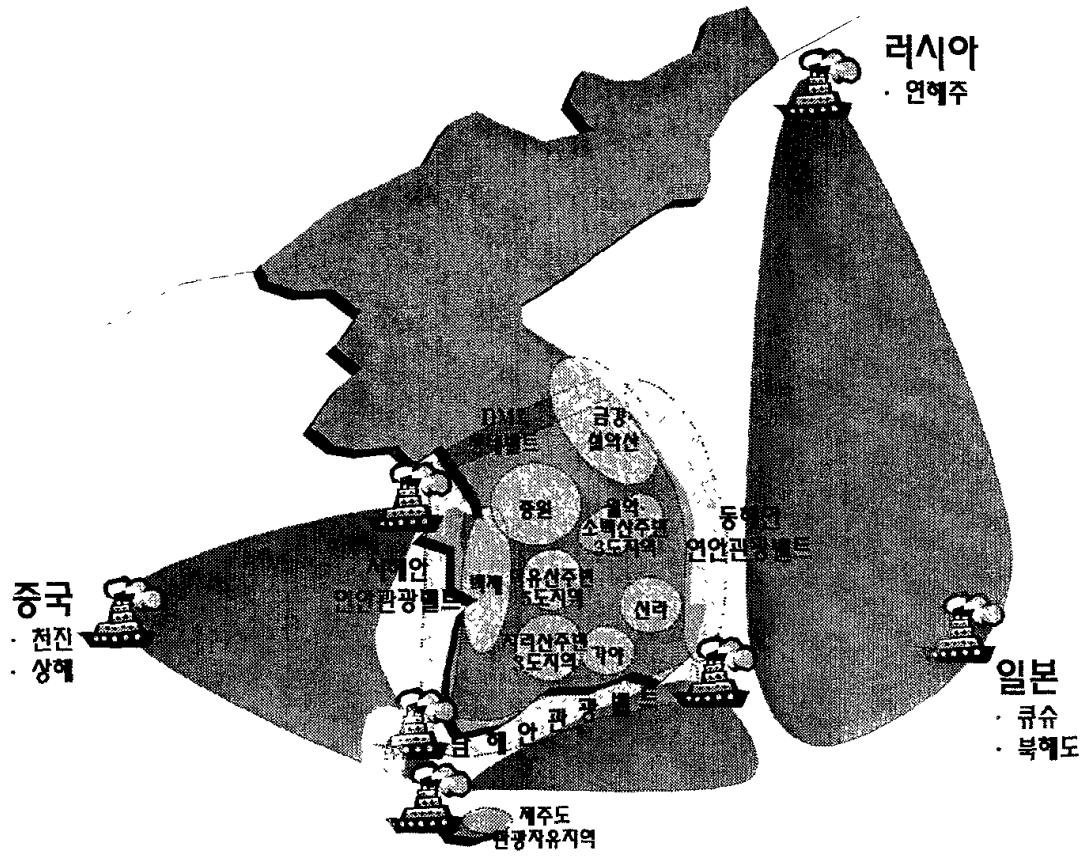
### 2)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의 추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산과 강, 호수 등으로 구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문화관광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아직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문화관광부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어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간에 공동의 협의 없이 경쟁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여 자원을 훼손하고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특정지역에서는 개발재원이 부족하여 잠재력이 높은 자원임에도 개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간의 경계지역에 놓여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서 지역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지역간 화합의 계기로 이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지역 중 산악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낙후지역이 대부분으로서 지리산주변 3도지역(전북, 전남, 경남)으로 남원-장수-함양-산청-하동-구례-곡성지역, 덕유산주변 5도지역(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으로 무

주-영동-김천-거창-장수-진안-금산지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월악·소백산 주변 3도지역(강원, 충북, 경북)으로 태백주변-영주·안동주변-단양주변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도 호수주변지역(충주호 주변지역 등), 섬진강, 만경강, 금강 등 강 양안지역 및 접경지역이 공동개발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



제5장

# 역사·향토문화·자연환경이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 1. 역사 및 전통문화공간의 확충과 상품화

종묘, 팔만대장경, 석굴암, 불국사 등 세계문화유산과 조선시대 전통시장의 재현 등을 대형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상품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는 봉평장, 화개장, 강경의 젓갈시장 등 각 지역의 특색있는 시골장터에 주목하여야 한다. 시골장터를 소재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각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상품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의 유명 재래시장에 대한 상품화 가능성 조사 및 중점 육성대상을 선정하여 재래시장 풍물보존 지원 및 쇼핑관련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각종 안내책자에 소개, 홍보 브로슈어 제작, 연계관광상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인사동, 이태원, 남대문, 동대문, 경동시장, 종로 보석상가 등과 연계하여 재래시장 쇼핑상품을 개발하고 시티투어 코스에 이들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광주비엔날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세계도자기 축제 제주 섬박람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기존의 국제적 이벤트를 상설화하고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문화·관광축제가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이를 세계에 알려 국제적 관광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적 하부구조를 대폭 확충한다. 서울 남산한옥마을, 안동 하회굿, 해남 서편제, 남원 동편제 전수관 등을 건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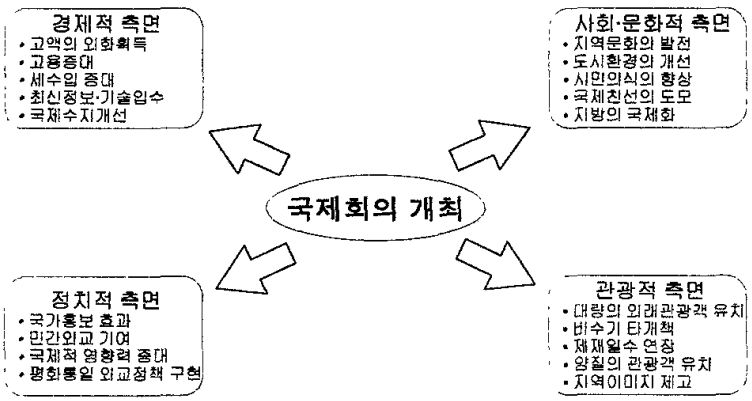
여 이를 상품화하고, 양주 별산대놀이 등 지역의 전통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전문시설 즉 특수박물관 및 문화예술관 등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군·구별로 확충하고, 읍·면·동별로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이용을 도모토록 한다.

이밖에도 우리고유의 음식, 종가, 문화유적, 차, 사찰 및 도서탐방 등 주제를 갖는 탐방상품을 개발하고 이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테마관광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고유의 무술, 악극, 창 및 군사활동 등을 관광상품화하여 포함할 수 있다.

## 2. 국제적 관광전문시설의 확충

### 1) 컨벤션산업의 진흥

컨벤션산업은 호텔산업, 항공운송산업 및 이벤트산업과 더불어 관광기간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네 부문의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관광산업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림 5-1> 국제회의 산업의 효과[11]

컨벤션 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고액의 외화획득, 고용증대, 세수증대, 최신정보 및 기술입수,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세계화 도모에

11)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회의 산업현황, 1998

기여(지역문화의 발전, 도시환경의 개선, 시민의식의 향상, 국제친선도모),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국가홍보 효과, 외교에 기여, 국제적 영향력 증대), 관광홍보·유치증대효과(대량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 비수기 타개, 체재일수 연장, 관광홍보요원화) 등 그 성장잠재력이 지대하다.

더욱이 세계적인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제회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동북아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경학적 위치,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 유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국제회의 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표 5-1> 한국 컨벤션산업의 추진과제[12]

| 주요 정책과제 | 세부과제 | 기간 | 재정 | 법령 정비 | 주체 | |
|---|---|---|---|---|---|---|
| | | | | | 정부 | 업계 |
| 켄벤션 유치 | ·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대, 컨벤션 분리 검토 | 단기 | × | ○ | ○ | |
| | · 컨벤션 개최·참가보조·유치·홍보 지원 | 단기 | ○ | ○ | ○ | |
| | · 컨벤션 마케팅 전략(국제행사유치위원회) | 단기 | ○ | ○ | | ○ |
| 컨벤션 센터건설 | · 컨벤션센터 건설의 행·재정적 지원 | 단기 | ○ | ○ | ○ | |
| | · 컨벤션센터의 분류체계 정비 | 단기 | × | ○ | ○ | |
| | · 지역여건을 반영한 컨벤션센터 건설 | 단기 | × | ○ | ○ | |
| | · 복합컨벤션 개념도입 | 중기 | × | △ | ○ | |
| 공신력 확보 | · 통·번역사 자격증제도 도입 | 단기 | ○ | ○ | | ○ |
| | · 컨센션기획사 자격증제도 도입 | 중기 | ○ | ○ | | ○ |
| | · 전문가 풀 네트워크 구축 | 단기 | ○ | ○ | | ○ |
| | · PCO업체 국제적 ISO인증 획득 지원 | 단기 | ○ | ○ | ○ | |
| 관련 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 · 협력경영 추진업체 선정지원 | 단기 | ○ | ○ | ○ | |
| | · 관광·컨벤션·전시회 관련기관 업무조정 | 단기 | × | ○ | ○ | |
| | ·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및 권한 이양 | 중기 | × | ○ | ○ | |
| 기 타 | · 정부·관련기관 컨벤션 용역비 인정 | 단기 | × | ○ | ○ | |
| | · 지자체의 컨벤션산업 육성기반 조성 | 중기 | × | ○ | ○ | |
| | · 국제회의도시 지정제도 기준·지정구체화 | 단기 | × | ○ | ○ | |
| | · 대외무역법* 개정 협의 | 단기 | × | ○ | ○ | |
| | · 국제회의기획업의 벤쳐기업 지정·육성 | 단기 | × | ○ | ○ | |

주: 단기는 2005년까지, 중기는 2010년까지, 장기는 2020년까지
○ 해당, △ 수정, × 해당없음
* 법령정비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12) 국토연구원, 한국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식산업화 방안, 1999

컨벤션산업은 국제적 공식기구에 의한 회의중심인 유럽의 메세(Messe)형과 기업·단체의 집회중심인 미국의 컨벤션(Convention)형으로 구분하는데 현재는 거의 국내외 회의와 전시·교역, 이벤트기능이 복합된 형태로 큰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제화 기능이 갖춰진 전문 컨벤션센터가 필수요건인데 초기투자비 부담이 많아서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애로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의 직접참여에 의한 전문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되 용도를 다변화하는 복합센터로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형태의 차별화 유도로 개성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 부산, 제주 등과 함께 국제항만, 국제공항 도시에 설치를 검토하고 특히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2) 세계적 테마파크의 조성

테마파크에서 테마란 꿈, 모험·미래(디즈니랜드), 역사와 과거시대의 재현(넛스 배리팜의 서부개척시대, 한국민속촌), 영화산업(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장(허시 쵸코렛 파크), 우주·과학(스페이스월드, EXPO랜드) 등과 같이 다양하다. 테마의 다양화 현상은 사회발전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용객들의 욕구변화에 따라서 부단히 변화·발전해 나간다.[13] 테마파크란 이러한 소재를 발굴하여 그에 맞는 시설과 놀이 프로그램, 캐릭터 등이 일체성을 갖도록 마련해 높은 창의적 공간을 일컫는다.

여가중시사회 도래, 과학기술의 발달, 문화·관광·리조트에의 욕구증대 경향이 관광산업에 유리한 기반을 제공함에 따라 관광에서도 수동적인 시각관광에서 능동적인 참여관광, 휴양관광에서 학습관광, 체험관광, 모험관광, 예술관광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테마파크는 관광객들에게 학습

---

13) 차낙근, 테마파크개발 사업전략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pp.22-23
국토연구원, 전게서, 재인용

·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관광산업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인 관광자원 부족에서 기인되는 『볼 것이 없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공적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인 시설관광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시설 관광자원 중에서도 테마파크가 성장산업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이며, 21세기형 첨단기술 및 서비스산업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테마파크가 다음과 같은 특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표 5-2> 세계의 테마파크 집객능력(1998)

| 세계 순위 | 명칭 및 위치 | 개장 년도 | 입장객수 (천명, '98년) | 면적 (천평) | 아시아 순위 |
|---|---|---|---|---|---|
| 1 | 동경 디즈니랜드(일본) | 1983 | 16,686 | 250 | 1위 |
| 2 | Magic Kingdom(미국, 올란도) | 1971 | 15,640 | 225 | |
| 3 | LA 디즈니랜드(미국 | 1955 | 13,650 | 120 | |
| 4 | 파리 디즈니랜드(프랑스) | 1992 | 12,500 | 282 | |
| 5 | EPCOT Center(미국, 올란도) | 1982 | 10,987 | 165 | |
| 6 | MGM Studios(미국, 올란도) | 1989 | 9,474 | 130 | |
| 7 | Universal Studios(미국, 올란도) | 1990 | 8,900 | 550 | |
| 8 | 용인 에버랜드(한국) | 1976 | 7,326 | 300 | 2위 |
| 9 | Blackpool Pleasure Beach(영국) | 1896 | 6,600 | 51 | |
| 10 | 디즈니 동물의 왕국(미국, 디즈니월드내) | - | 6,000 | 72 | |
| 11 | 롯데월드(한국) | 1989 | 5,800 | | 3위 |

자료 : 임영수, 테마파크의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천리안, 주제공원의 10대 입장객수, Amusement Business1999 등 참조 국토연구원, 1999, 재인용

매력있는 관광목적지로서 이미지를 고양하고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다양화와 품질의 고급화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중요한데, 그중 테마 파크는 모든 관광휴양시설의 꽃이고, 고부가가치형 시설로서 새로운 인구유입, 고용기회창출, 세수증대, 지역

생활환경 제고, 지역이미지 제고 등에 효과가 높은 지역개발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테마파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어 그 나라만이 가지는 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백제촌, 관광민속촌, 고인돌, 공룡화석, 갯벌, DMZ 등 우리만의 독특한 테마파크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적 문화·관광환경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디즈니랜드, 레고랜드 등 세계적 브랜드의 테마파크를 국내에 유치하여 이들의 지명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 3) 휴양실버타운의 개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70년 63.2세에서 1980년에는 65.8세였는데 '95년에는 73.5세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74.9세에 달할 전망이며 2020년에는 78.1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6.6%인 305만 명, 2000년에는 7%를 넘어 '노령화사회(Aging Society)'가 되고, 2020년에는 13.2%, 2022년에는 14%를 넘어 '노령사회(Aged Society)'로 될 전망이다. UN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를 넘는 사회를 '노령화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도 노령화사회를 맞을 날이 멀지 않았다.

<표 5-3>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 구분 | 1998 | 2000 | 2022 | 2030 |
|---|---|---|---|---|
| 노인인구(천명) | 3,050 | 3,371 | 7,527 | 10,165 |
| 구성비(%) | 6.6 | 7.1 | 14.3 | 19.3 |
| 노년부양비(%) | 9.2 | 10 | 20.8 | 29.8 |

자료: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1996.

특히 우리나라는 여타 어느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노령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노인인구 7%가 14%로 증가하는데 소요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그리고 미국이 75년이었는데 반해 우리는 불과 22년만에 진

입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노령층을 겨냥한 실버산업, 특히 이웃과 더불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노인복지시설이 미래산업으로 꼽힌다.

<표 5-4> 일본 실버층의 방한여행 성향

| 구 분 | 성 향 |
|---|---|
| 방문횟수 | 20-30대 여성층의 경우 첫 방문자가 75%인 반면 실버층은 4회 이상자가 과반수임. 그러나 실버층에서도 첫 방문자가 증가 |
| 방한목적 | 전반적으로 관광목적 방문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 실버층의 경우 방문목적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다양함. 기타 목적을 열거해보면 학술연구, 私的여행 등임 |
| 방문동기 | 한국을 방문한 동기로는 '친구·친지의 추천'이 40%이상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여행사의 추천, 광고, 보도내용의 순으로 이어짐. 20-30대 경우 광고와 보도내용이 주요 방문동기로 작용한 반면 실버층은 여행 등이 주요 방문동기임 |
| 여행형태 | 전반적으로 다른 외래객에 비해 재방문자의 비율이 높아 개별여행이 비중이 높음. 20-30대 여성층은 첫 방문자가 75%나 차지하는 관계로 여행사를 통한 방한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실버층은 개별여행자가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체재일수 | '98년부터 일본인의 체재기간이 상당폭 감소하고 있음 |
| 이용숙박시설 | 일본인은 방한기간중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음 |
| 지출경비 | 20-30대 여성층의 경우 쇼핑비의 비중이 4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실버층은 타국으로의 여행시와 마찬가지로 숙박, 식음료, 유흥, 쇼핑비 부문에서 평균보다 지출비용이 많음 |
| 쇼핑품목 | 쇼핑품목을 살펴보면 갈수록 김치, 식료품 등 음식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증가. 20-30대 여성층의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며, 실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혁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 쇼핑장소 | 일본인이 선호하는 쇼핑장소는 공항 및 시내 면세점과 백화점임. 특히 여성층의 시내면세점 이용비율은 80%에 육박함. 그러나 최근에는 남대문 등 재래시장 이용 비율 증가. 실버층의 경우도 면세점 이용 비율이 높으나 전체 평균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상가나 시내기념품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음 |
| 물가에 대한 의견 | 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저렴하다는 의견이 증가. 특히 20-30대 여성층에서 두드러짐. 실버층의 경우는 부문별로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여행에 대한 만족도 | 20-30대 여성층은 쇼핑과 음식 등 특정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관광내용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음. 반면 실버층은 관광내용, 관광안내,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 한국 방문시 인상깊었던 점 | 20-30대 여성은 고유 음식과 쇼핑기회 항목에서 압도적인 응답율을 나타내나 전통문화, 기후, 자연경관 등에서는 상당히 낮은 응답율을 나타냄. 실버층의 경우 자연경관, 한국인의 친절성, 기후, 고유음식 등 인상깊은 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이미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로서, 최근 실버층의 한국방문 증가추세를 설명해주고 있음 |
| 한국 방문시 불편했던 점 | 한국방문시 불편했던 점은 예전에는 교통혼잡, 언어소통과 같은 것이 주요 불편요인으로 지적되었으나 이러한 불편사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그러나 상품강매 및 화장실·음식점 불결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점차 응답율이 높아지고 있음 |

자료: 한국관광공사 Homepage, 일본 실버층 관광시장조사(요약), 1999.

노인 관광 위락의 가장 큰 변수는 건강과 교육,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다. 노인 복지 차원에서 건강과 교육 수준, 경제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실버 관광 위락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남해안관광벨트, 동·서해안 연안관광벨트 및 내륙의 산간고원지대, 온천지대가 휴양·실버타운의 적지가 될 것이다. 또한 갯벌, 약용 동·식물, 온천, 맥반석 등 건강광석을 이용한 국제적 휴양도시를 이들 지역에 유치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외자도입은 선진실버 기술과 자본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즉 노인들이 휴양이나 지방도시로의 이주가 원할하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이들이 살수 있는 주택이나 노인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정책이나 복지정책, 그밖에 주택시장의 구조에도 많은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 4) 크루즈상품의 개발

1996년 6월말 현재 세계 크루즈선대는 총 222척, 536만 6천톤으로 소수의 미국 및 유럽의 대선사들이 세계 크루즈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크루즈시장은 1994-5년의 침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新造發注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1997-1999년 중 크루즈선대의 인도예정량은 총 21척, 157만톤으로 현재 크루즈선대의 30%에 해당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세계 크루즈시장에서는 지난 25년간 승객의 꾸준한 증가, 선사들에 의한 지속적인 가격인하, 크루즈 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수요 유발, 그리고 특히 최근 유럽 및 아시아지역의 급성장 등 수요측면에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크루즈여행은 여러나라를 통과하는 세계크루즈관광(Worldwide Cruise), 지역크루즈관광(Regional Cruise,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를 연결하는 지역크루즈 관광 등), 특정목적 크루즈관광(Coffee Cruise,

Lunchon Cruise, Sunset Cruise, Harbor Highlights Cruise, Showtime Dinner Cruise)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 크루즈의 거점은 싱가폴이라 할수 있다. 세계 각국의 크루즈 여행사의 리조트 부대시설 등이 정비되고, 푸켓과 발리섬 등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풍부한 이점도 있어 근래 수년간에 크루즈여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밖에 비교적 부유층인 중국계 싱가폴인을 중심으로 구미 손님도 수용함으로써 대중화된 크루즈의 경영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아스까」(니혼마루)에 의한 세계일주 크루즈가 성행하고 있다. 싱가폴에서는 이미 구미형의 대중 크루즈가 성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아직 부유층지향의 고급 크루즈가 인기를 얻고 있으나 대중크루즈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 근해에 관광자원이 빈약한 것, 그리고 크루즈에 대한 정보가 일반화되지 않은 것, 또한 공급측에서 수요를 환기시키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들어 중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3일간 북경과 만리장성을 관람하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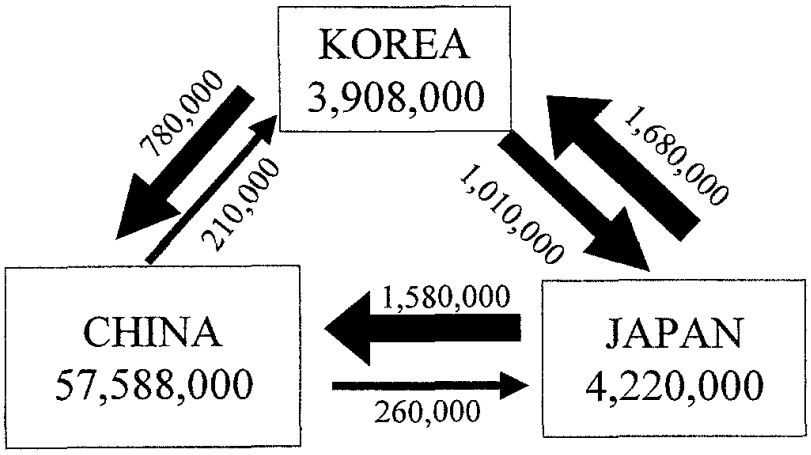
<표 5-5> 세계 크루즈관광의 수요전망

| 구 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성장율 | 6.5 | 8.0 | 8.0 | 7.0 | 6.0 |
| 총승객수(백만명) | 6.66 | 7.19 | 7.77 | 8.31 | 8.81 |
| 연승객수(백만명) | 43.96 | 47.45 | 51.28 | 54.84 | 58.15 |
| 수용능력(천명) | 148.70 | 161.20 | 174.70 | 186.90 | 200.00 |
| 연수용능력(백만명) | 52.06 | 56.41 | 61.15 | 65.52 | 70.00 |
| 가동율(%) | 84.44 | 84.12 | 83.90 | 83.80 | 83.10 |

자료: 해운산업연구원

우리나라도 크루즈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주)현대

상선에서 금강산관광의 크루즈관광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한·중·일의 해양여건을 감안한다면 각국의 독자적 크루즈 개발보다는 공동의 크루즈 루트가 효과적이다. 외국인 뿐만아니라 한·중·일 국민의 역내관광에 이용도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상해와 우리의 남해안, 일본의 규슈 또는 천진-서해안-제주, 북해도-일본 서해안-한반도 동해안-러시아 연해주를 연결하는 한·중·일의 가칭 오리엔탈 크루즈 개발이 시급하다.




<그림 5-2> 한·중·일 관광객 교류 현황(1997)[14]

이와함께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의 크루즈 허브기능을 보유하는 국제적 미항 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드니, 싱가포르의 항만 등이 벤치마킹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제항만 건설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14) 국토연구원, 전게서, 1999. 9

## 3. 자연과 농어촌 생활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 1) 모험관광 기반조성

레저용품의 발전과 안전도 제고가 이룩되면서 그 동안에는 일부 계층만의 활동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각종 모험관광행태가 점차 대중화돼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린천·평창강·동강 등지에서는 래프팅 활동이, 평창·영월·춘천 등지에서는 페러그라이딩, 행글라이딩 등 활공활동이 제주에는 열기구를 이용한 이벤트가 추진중에 있다. 또한 안산·서산·제주 등지에서는 초경량 비행기를 활용한 비행활동이, 남해·제천·청평 등지에서는 교각, 인공시설물을 이용한 번지점프 등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험관광시설은 그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세계적인 관광이미지를 갖출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의 번지점프, 알프스의 페러그라이딩, 남아프리카에서의 래프팅 등은 이미 세계적 명소로서 국가의 관광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모험관광시설의 확충과 이벤트의 유치 등은 우리나라 국제관광활성화에 또다른 상품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농어촌 관광상품화

방학캠프에서 시작된 체험학습은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자연과 만나고, 교실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탐사를 통한 우리국토 알기, 자연생태계와의 교감을 경험하는 열린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각급 학교와 청소년 사회단체는 역사, 문화, 자연 ,환경, 과학 등 각 주제별로 체험학습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현지에서도 대안학교나 폐교 자원을 이용한 체험학습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관광시설과 서비스개발로 개성 있는 관광공간 이미지를 구축한다. 허브 가든, 갯벌, 탐조여행 등 생태관광(Eco-tourism), 현지에서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농어촌에서 체류하면서 인정을 느끼는 녹색관광(green tourism) 상품을 개발한다.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교육적, 관광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동굴, 탐조, 샛강, 갯벌, 공룡화석지 등을 관광공간으로 공급한다. 개발내용은 관광편의시설, 주차장, 전망대 등으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한다.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자연조건을 마련하며 탐방로 중심의 공간 연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과개발 및 난개발, 시행 착오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시범 지역을 지정, 이를 바탕으로 보유자원을 유형별로 개발한다.

<표 5-6> 생태관광의 유형별 개발방향

| 유 형 | 개 발 방 향 |
|---|---|
| 동 굴 | · 기본적인 관광편의시설 조성(주차장, 화장실, 안내시설, 휴게소 등)<br>·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자연조건 마련<br>· 동굴연계 관광코스 개발 |
| 탐 조 | · 관광시설 확충(조류전망대, 조류박물관, 휴게실 등)<br>· 철새종류별 관광코스 개발 |
| 샛 강 | · 시범대상지: 여의도 샛강(서울시에서 지속적 개발 추진)<br>· 자연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자연조건 마련<br>· 생태체험 관광코스 개발 |
| 갯 벌 | · 기본적인 관광편의 시설 조성<br>·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자연조건 마련<br>· 생태체험 관광코스 개발 |
| 공룡화석지 | · 공룡테마관광지 개발 및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

각종 시설의 규모와 형태뿐만 아니라 적정 관광객 입장수, 출입로와 교통수단, 연료사용까지도 환경친화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관련시설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은 최대한 현지에서 조달하고 재정지원, 조세감면을 통해 관련업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어촌 휴양시설, 민가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 중심, 체험 중심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관광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농어촌 관광 사업만큼은 현지 농어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농촌을 휴양마을로 탈바꿈함으로써 1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의존하는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농촌의 자연공간이나 생활환경을 이용한 농촌관광으로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도시인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농촌은 소멸되어 가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전할 수 있게 되고, 도시인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양식을 체험하면서 농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은 관광에 대한 수용태세가 도시보다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그 자체가 매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지역의 환경에 맞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박시설은 민박이나 폐가, 폐교 등을 활용, 개조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지역내에서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 지역특산품, 향토식품 등 생산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지역의 소득원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지역 내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식물이나 희귀한 기념물들을 소재로 활용하여 소규모 전시관이나 기념관 등을 조성하고 과수원, 화훼원, 목장, 양어장, 낚시터 등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직접 채취하거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학습장이 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과 농산어촌의 생활상을 담아 보여줄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충도 필요하다. 자연사 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각종 형태의 민속촌이나 민속마을도 여건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지역

의 민속을 재현하는 이벤트와 함께 정비·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3) 산림휴양도시의 조성

이제까지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농업정책은 투자 효율에 밀려 농·산·어촌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소홀하였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이 공동화되었고 급기야는 농·산·어촌 붕괴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어촌이 살 수 있는 장소, 즉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역점을 둔 농림부의 신 농정방향은 21세기에도 유력하다.

농정과 시대적인 상황이 부합되어 도시화의 진전과 산업화의 확대로 인한 자연 환경 및 공해 추방에 대한 수요가 팽창되는 것과 연결되어서 산촌이 휴양지 뿐 아니라 주거지로서의 수요[15]도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산촌이 변모한다는 것은 특별히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기능을 산촌이 공유하는 것이다. 즉 산촌에 살면서도 도시에 사는 것처럼 모든 문화, 교육, 사회적인 시설이나 기반이 도시와 마찬가지로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촌이 아직까지는 목재 자원의 부족으로 생산력 및 경제적 자립 능력은 뒤지지만 주거지 또는 휴양지로서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직한 산촌의 모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시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인들을 산촌으로 받아들여 같이 생활 할 수 있는 넓은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정보화에 의하여 산촌이라고 해도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15) 직접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참여시간의 증가, 위락 활동의 대형화, 광역화, 장기화의 추세 속에서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주로 산림지역이다. 최근의 레크레이션 활동이 금전 소비형에서 시간 소비형으로 이동형에서 체재형으로 단체 직장형에서 개인 그룹형으로 보는 관광형에서 하는 참가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표 5-7> 산림 휴양시설 조성 실적 및 계획

| 구분 | 계 | '97까지 | '98계획 | '99-2007 |
|---|---|---|---|---|
| 합계 | 315 | 110 | 18 | 187 |
| 자연휴양림 | 115 | 67 | 8 | 40 |
| 산림욕장 | 83 | 28 | 10 | 45 |
| 숲속수련장 | 117 | 15 | - | 102 |

자료;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p.126

오늘날 휴양객의 활동은 농·산촌의 직접 경작, 재배 활동 참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 생활에서 지친 피로를 풀어주고 자녀들과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들에게 필요하므로 이러한 방향의 산촌휴양자원의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는 지역 주민이 배제된 대규모 위락단지의 조성 형태보다는 산촌의 기본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양 자원의 개발 또는 휴양 시설의 유치는 지역 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역 특산품과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고 산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민의 민박 수요를 충족하면서 고향 같은 멋을 살리는 특색 있는 전원 풍경의 조성과 도로 등 사회간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산촌지역 자체를 산림도시화하는 것이다. 산촌은 도시에 대하여 2, 3차 산업 및 거주의 장소 또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16]

### 4) 개발이익의 현지화

21세기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종래의 막연한 관광지개발 중심의식에서 문화 교류와 지역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보는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객을 유인하는 수단은 관광지, 자연자원, 이벤트 등 다양하다. 외지 대기

16) 박명규 외(1993), 우리의 산촌-산속 마을의 새로운 진로- 일신사

업 등에 의한 새로운 관광지개발은 막을 수 없는 추세이나 현지 주민에 의한 기존의 관광 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광 소득을 현지화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 지향적 개발 방식보다는 생활거점지역 중심의 관광 자원 기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싸게 접근하여 쉴 수 있는 곳이길 희망한다. 그러나 지역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다수의 관광객이 적은 돈을 쓰기보다는 소수의 관광객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새로운 21세기 관광패러다임 하에서는 철저한 고객관리와 자원관리를 통하여 문화와 자연이 외래 관광객과 현지 주민 상호간 이익을 주는 공생관계에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 문화·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강화

## 1.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정책의 추진

문화·관광개발정책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종래의 효율성과 이익중심 그리고 고객중심의 관광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지역사회개발을 의미한다. 즉, 고객만족, 고용창출, 세수증대,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목표가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 증대,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 고취 등의 방향으로 목표변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발의 중심이 지역주민이 되어 지역민의 생활이 그대로 문화·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재와 생활양식, 독특한 전통과 주거양식, 식문화 등이 그 대상일 수 있다. 한편 농림어촌에서 문화·관광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산업 및 시설을 보면 우선 지역산업에서는 농림업, 수산업, 축산업, 전통공예산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정비사업에는 휴양마을 조성, 향토음식촌, 목각마을 조성 등의 사업이, 복지시설 부문은 수영장, 스포츠센터, 공공확충사업이, 문화시설 부문은 천문대,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등 사업을 들 수 있다.

<표 6-1> 종래 개발방식과 지역중심 개발방식 비교

| 구분 | 종래관광개발 | 지역관광개발 |
|---|---|---|
| 개발목표 | - 고객만족<br>- 고용창출<br>- 세수 증대<br>- 기반시설 확충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소득증대<br>- 생활환경의 개선<br>- 정체성, 자부심 고취 |
| 개발주체 | - 국가, 공공단체<br>- 민간사업자<br>- 대기업 | - 지자체, 지역공공단체<br>- 지역주민(제4섹터), 시민기업<br>- 지역기업(제3섹터) |
| 개발대상 | - 뛰어난 자연<br>- 온천<br>- 문화유적<br>- 지정문화재 | - 지역 고유환경과 문화 : 기후, 자연현상, 풍습, 축제 등<br>- 산업 : 농업, 수산업, 임업, 목장<br>- 마을단위 관광개발 |
| 개발내용 | - 관광시설 : 스키장<br>- 숙박시설 : 호텔<br>- 편의시설 : 수영장 | - 생산기반시설 : 도로 확충 등<br>- 생활기반시설 : 주택, 주거환경<br>- 최소한의 관광객 편의 시설<br>- 특산품 개발 및 판매 |
| 개발성격 | - 대규모, 집중적<br>- 자연파괴적<br>- 단기적 개발 | - 소규모, 저밀도, 분산<br>- 환경친환적 개발<br>- 장기적 개발 |
| 시장성격 | - 대규모 시장<br>- 하나의 지배적 표적시장<br>- 높은 계절성<br>- Phsychocentric형 관광객 | |

## 2.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공급

### 1) 접근시설의 확충

문화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SOC부문의 기반시설은 향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종래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이용이 저조하였던 해양관광 부문의 항만시설과 고가의 교통수단인 항공분야에서 필요한 공항수요가 그것이다. 따라서 요트장, 크루즈항 및 기존 항만의 관광적 이용을 위한 항만시설의 확충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기존 공항의 여

객이용과 함께 헬리콥터 및 중소형 여객기, 경비행기 등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소형 비행장 또는 경비행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 분야의 시설확충과 함께 관련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다분히 문화·관광적 수요충족을 위한 시설로서 전국의 해안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의 건설과 연육·연도교의 건설 등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이와 함께 생태환경의 관리, 산림생산의 증대 등 임산물의 생산지원시설인 임도가 새로운 문화·관광을 지원할 기반시설로 등장할 전망이다. 자연과 좀더 가까이 하면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서 자연보도,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및 산악스키 활동에 이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2) 안내 및 서비스 인프라 확충

앞으로는 외국인 뿐만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교통안내, 통신, 숙박시설, 쇼핑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예약할 수 있는 사이버 종합안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음식 서비스의 국제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고유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외국인 불편사항의 많은 부분이 음식서비스의 불결을 들고 있어서 이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다. 양식서비스와 같이 규범화된 모형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지내에서의 안내·해설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자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고, 문화관광자원의 연혁 뿐만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비화, 야사 등도 소개할 수 있는 해설가이드를 육성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시청각 해설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해설자체가 관광자원화 되도록 향토사학자,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국민은 서비스에 익숙치 않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의 서비스수준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민

들에게 각 시설운영시 필요한 서비스수준을 알려주고, 서비스 방법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축도 마련되어야 한다.

## 3. 선진 문화·관광기반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1) 투자 및 집행주체간의 역할 정립

문화·관광 부문에 집행기능은 중앙정부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그리고 공공과 민간간에 역할 분담이 미약하다. 따라서 이들 주체간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공공은 SOC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은 시설개발을 분담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간 개발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기타 계획은 사업주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관행조성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분야의 투자 및 집행은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국토계획적 관점에서 협의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관광공간 및 시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서 민간의 참여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원입지적 관광공간 개발이나 문화재 정비 등에 주력하고 시설물 이용 중심의 공간개발은 민간주도로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공공에서는 개발계획을 남발하지 말고 사유지가 많아 당장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광지 등의 지정과 개발계획을 가급적 억제하고 토지소유주와 민간자본이 자율적으로 개발토록 역할 분담이 조정되어야 한다.

### 2) 자유로운 문화·관광을 위한 규제 완화

문화·관광활동은 자유와 휴식을 상징한다.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를 제한하고 규제하여 활동이 위축된다면 문화·관광부문의 활성화에는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대치상황, 안보와

결부된 문화·관광활동의 제약은 긴장완화와 함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거 안전문제와 결부되어 제한 받아왔던 요트, 선박의 관광목적 활동은 레저용품의 질적 개선과 국민의 안전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역시 점차 완화할 필요가 있다.

### 3) 문화·관광환경을 지원·관리할 제도의 제정

문화·관광환경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유적의 복원이나 보전과 함께 경관을 유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중요문화 관광자원 인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나 형태 그리고 색상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경관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고건축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사유의 고가, 종택 등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도 필요하다. 귀중한 문화유적의 훼손을 막으면서 정부가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National Trust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고도보존법」 (일본), 「도시전원경관법」 (영국), 「역사적 미술적 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건조물의 수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률」 (프랑스), 「기념물보호법」 (독일 바이에른주), 「지표와 역사지구 보존법」 (미국) 등을 제정하여 문화재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 문화환경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역사고도 자연환경 보존특별법"(가칭) 또는 "옛도시 보존법"(가칭)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17]

---

17) 문화정책개발연구원, 역사고도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작성 연구, 1997

# 여 백

# ABSTRACT

## The realization of the cultural-tourism nation

*Tae-Sung Seo*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cultural-tourist nation, as a section of the fourth comprehensive territorial planning.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trend and vision of the culture-tourism, the second part is a basic planning direction, and the third part is made up of the driving plans.

The first part indicated problems of the cultural-tourism sector in our country. First, As the whole nation is lack of the basic conception to improve their tourism. Second, we indicated to an insufficiency of the principal cultural and recreational facilities. Third, by the lack of the high value-added goods has low competitiveness in korea. Fourth, there Has been no sufficient the comprehensive operation systems of the cultural-tourist development policies.

And according to the observation of a given condition, First, we forecast the tourist industry on the assumption that it grows up to central industry of the world, and tourist activity volume of the world tourist amount and the east asia·pacific area. We estimate that inbound visitors will increase 11 million persons and outbound visitors 13 million persons by the 2020 years. Second, we forecast that spare time will

increase 6.9 hours than the present, so there will be a variety of leisure pattern, vacation type, and activity. And there will be increasing demand on unknown or unused rare resources. The concern on our native culture & history will increase. And there will also be a change to the cultural-tourist policy to support them.

The basic planning direction is to build "a international cultural-tourist basis". This part's object is "an improvement of standard representative cultural-tourist nation in East-north Asia by ensuring the korean identities". In order to achieve them, the four basic direction is suggested. They are as followings; ① development of a variety of characteristic cultural-tourist regions, ② development of strategic cultural-tourist area, ③ development of the tourism good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④ building of infrastructure for improvement of culture-tourism

As driving plans first of all, the whole nation is divided into 7 cultural-tourist regions by the characteristic of cultural and tourist resources; Han river region(international city, traditional culture and tour), Kangwon region(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4 season tour), Chungchung region(Baekje culture and mountain recreation center), Honam region(traditional cultures with theme and the ocean tour), North-Yongnam region(traditional culture and texture event), South-Yongnam(international city and the ocean tour), and Chejoo region(island culture and international free tour). Espeacially, each area will have various subjects to be uniquely developed. Also, we suggest another detail plans for expansion of the tourist-leisure space in metropolitan.

Secon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equipments of cultural region(Baekje culture area, Shilla culture area, Jungwon culture area, and Kaya culture area), we arrange additional culture region - Andong Confucianism culture area, Kangwha culture area, Jiri mountain culture

area, and Dadohae culture area, which are the centers of regional life, topographical speciality, or history. Also we propose the culture villages like Shilla culture village and Baekje village and studying places of traditional culture. Besides we promote the North-South cooperation, joint developments in the Northeastern region, and joint projects regions(ex. the Southern tourist belt development and so on).

Third, to develope the culture-tourist goods we suggest the expand of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space and the merchantable methods of them. Also, point the importance of convention industry, construction of theme park, development of relaxation silver town and cruise package, etc. Tourist goods utilizing the life of nature and agricultural·fishing·mountain village - for example, adventure tour, ecology tour, experience tour plans are proposed.

Fourthly there is great needs for intensifying supports to efficiently proceed the culture-tourist policies. We suggested the culture-tourist policies accomplished by each region. The supply of new base facilities estimated in culture-tourist sector - for example, increase in access facilities(the airport and the harbor), building of infrastructure for improvement of guidance and service are required.

국토연 99-61
문화·관광국토의 구현 / 서태성

발행 · 1999년 12월 31일
발행처 ·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 제2-22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 0343-380-0114
팩스 · 0343-380-0470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 둡니다.